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11-812 1982년 4월30일(금), 5월1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April 30, & May 1,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MAY 3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회관축성·견진성사등 바쁜일정=

김수환추기경 여장풀어

"여러분과 모든이를 위하여"

한국종교계및 민주·정신계지도자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이 예정대로 지난 28일 하오3시51분착 아메리칸·에어·라인편으로 토론토공항에 내렸다.

고종옥신부를 비롯한 가톨릭신자, 꽃소녀들, 이상훈토론토주재 총영사, 한인언론계 인사등 약30명의 영접을 받은 김추기경은 추기경복(정장)을 입지않고, 평소의 소탈하고 검소한 자세 그대로 평신부복장으로 트랩을 내렸다.

한인가톨릭회관 준공식과 견진성사(견신례) 집전을 위해 일주일간 토론토를 방문하는 김추기경이 즐겨쓰는 표어는 "여러분과 모든이를 위하여"(Pro Vobis et pro Multis)이다.

김추기경의 토론토 도착일 4월28일은 그가 추기경으로 승계된 13주년(69년 추기경 피명) 기념일이다.

김추기경의 토론토 방문은 73년 비공식 방문이후 두번째이다.

◆토론토공항에 도착한 김추기경(중앙),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는 장추국씨 부인. (왼쪽은 고종옥 신부)

이날 저녁7시 천주교인 신경용씨댁에서 있은 동부구역 신자간부들과의 회식에서 김추기경은 이민생활속의 신앙상 여러 문제들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특히 과거 두차례 부하직원(가톨릭시보사 56년-57년, 가톨릭출판사 57년-75년)이던 이석현씨와 서울대교구비서실 근무 김아녜스(심리학자 김지일박사 부인)여사와의 7년만의 재회를 반겼다.

김추기경의 세부 스케쥴은 아래와 같다.

•4월29일(목)
▲토론토 대 교구장 카터 추기경 방문
▲교민을 위한 강연회
▲동부지역신자 간부와의 만찬회

•4월30일(금)
▲120명의 세례신자 견진성사 집전

•5월1일(토)
▲총영사관 오찬회
▲가톨릭회관 축성
▲서부지역신자 간부와의 만찬회

•5월2일(일)
▲회관축성 기념대미사
▲환영만찬회(하오 6시 프린스호텔)

•5월3일(월)
▲토론토 출발

테레사 수녀 2일간서울방문

(서울23일=연합)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테레사수녀(72)가 28일 자신이 설립한 자선선교센터의 활동을 돌아보기 위해 서울에 도착했다.

2일간 서울에 머물 "캘커타의 성녀" 테레사수녀의 서울방문을 이번이 2번째이다.

김추기경 약력

◆김추기경

◆1922년 : 순교자의 후예로, 김영석씨의 5남3녀중 막내로 탄생(형 김동한씨도 신부)
◆경북 군위보통학교, 서울 동성중학 졸업.
◆상지대학(동경 가톨릭대학) 재학중 학병(일본군)으로 징집돼 종군, 필리핀 근해 괌잠도(야다께 섬)에서 미군에 집단 포로가 됐다가 석방.
◆51년9월 : 가톨릭대학 신학부 출신 사제(신부)로 서품.
◆51년~56년10월까지 대구교구본부·안동, 김천본당 주임, 김천 성의여중고 교장겸 대구 가톨릭시보사 부사장
◆56년10월~64년 : 독일 뮌스터대학 유학
◆64년~66년5월 : 주교로 승품, 초대 마산교구장
◆68년4월 : 대주교로 임명, 서울대교구장 취임
◆한국주교회의 의장
◆69년4월28일 : 추기경으로 승격(당시 47세, 세계 136명 추기경중 최연소 추기경)
◆74년 : 교황청 주교협의회 15명 대표로 임명 받음.

추기경이란?

추기경(Cardinal)이란 교황의 최고고문으로 교황청저주 추기경과 세계각국에서 사목전선에 대교구장으로 활약하는 추기경으로 나뉜다.

가톨릭교회 중요사항 결정을 위한 추기경회의에서는 교황이 의장이되고, 따로 주교들도 참석하는 공의회도 있다.

교황이 세상을 떠나면 전세계 약170명의 추기경들이 전원 바티칸에 모여 시스틴대성당에서 차기 교황선거를 실시한다.

교황 피선자는 꼭 추기경중에서 나와야 한다는 법은 없으나, 추기경중에서 교황을 뽑는것이 관례로 되어왔다.

가톨릭의 교계제도는 교황을 중심으로 추기경단이 있고, 대주교·주교·신부·신자의 순으로 된다. 그밖에 몽시뇰이있으나 담당교구가 없는 명예 주교격이다. 또한 수도원은 특수신자들의 수덕단체이다.

영국·알젠틴 전면전임박

포크랜드해상봉쇄, 상륙태세

(런던) 영국은 30일 7시부터 포크랜드 근해의 영공과 해상을 봉쇄한다고 발표했다.

영국함대들은 포크랜드군도 주위를 포위, 수시간이면 군도를 탈환할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알젠티나측은 전면전이 임박했으며 선제공격을 취할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영국및 알젠티나에 평화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면서 헤이그국무장관을 또다시 브웨이노스·아이레스로 파견할 것을 양측에 제시했다.

워싱턴에서 열린 미주안보기구(OAS)는 28일 포크랜드군도의 알젠틴 지배권을 인정하고, 알젠틴과 영국은 즉각 휴전하라는 결의안을 17:0으로 가결시켰다. 미국과 다른 3개국은 이 투표에서 기권했다.

이보다 앞서 60일으로 구성된 영국해군수색대가 포크랜드로 잠입 영국함대의 상륙지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대처수상주재아래 열린 긴급각료회의후에 나온 경고문에서 30일 상오7시부터 포크랜드군도 370Km의 해상과 영공을 봉쇄한다고 발표했다.

영국함대는 지난 25일 포크랜드로부터 1,400Km동쪽의 사우스·조지아군도를 가볍게 재탈환했다.

포크랜드군도는 지난 150년간 영국에 의해 지배돼왔으나 알젠티나가 4주전 기습탈환, 알젠티나군이 주둔하고 있다.

최신부 국가보안법위반혐의

문화원방화 관련15명기소

(부산 29일=연합) 부산지방검찰청은 29일 미문화원 방화사건에 관련 구속된 15명을 정식 기소했다.

문부식(23), 김현장(32)등이 포함된 이들 15명중 특히 이들을 원주교구에 숨겨준 혐의로 구속된 최기식(40)신부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사형까지 언도받을 수 있다.

검찰당국은 최신부가 김현장에 은익처를 제공한 이외에 거사자금조로 50만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문부식은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주모했고 81년3월부터 82년2월까지 부산시내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국내 사회주의 개혁을 고취시키는 강좌를 주최해왔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80년5월 광주시민봉기 주모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현장은 또한 81년1월부터 8월까지 대학생들을 상대로 20여회 강좌를 벌여 선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기식 신부

사고

제1회 어린이야구대회

본사는 금년부터 어린이 야구대회를 주최합니다.

~~한인사회의 장래를 짊어질 소년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북미에서 인기 높은 야구에 대한 2세들의 관심을 북돋는 한편, 스포츠를 통한 어린이들의 아이덴티티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 행사는 오는7월 토론토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일시및 장소는 장소가 예약되는대로 곧 발표합니다.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에서"라는 이 행사의 모토에 찬동하시는 교회학교, 한글학교등 많은 단체의 찬가를 바랍니다.

주최 : 토론토한국일보사
후원 :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브랜돈스포츠사

오늘의 예금금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 기 예 금	30일	14%	12.75~15%
	90일	14.25%	
	180일	14.5%	
	365일	15%	
	2년	16%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의령학살 현장보도
3·5·6·7면에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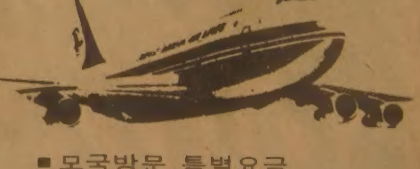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창사5주년 사상최초
대 재고정리 세일

30~50% OFF
다이야몬드
각종보석·
귀금속
일본산 진주
비취
고급시계
카나다보석 협회 회원
고려보석
EATON CENTRE
(Level 1분수대 옆)
중앙분수대앞
979-3196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캐나다 항공사 가격경쟁

워데어, 에어캐나다, C. P. 반액대매출

에어·캐나다(Air Canada)와 씨피·에어(C.P.Air)에 이어 캐나다 제3의 항공회사 워데어(Wardair)도 토론토-캘가리, 토론토-뱅쿠버 노선에 측각적 요금인하를 선언, 국내 항공사들의 치열한 가격전쟁이 시작됐다.

워데어 피터·젠킨스 대변인은 27일 다른 경쟁 항공사에 대한 결제책으로 4월27일부터 6월18일까지, 9월6일부터 11월1일까지 토론토-뱅쿠버의 경우 왕복 249달러, 6월19일부터 9월5일까지 여름성수기에는 343달러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토론토-캘가리의 경우는 209달러와 286달러가 각각 적용된다.

에어·캐나다와 씨·피에어는 이미 여름성수기에 가격인하를 선언했었다.

워데어의 가격은 다른 항공사와 똑같으나 예약조건등의 제약없이 출발당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에어·캐나다는 최근 여름성수기(6.19~9.7)부터 반액대매출(?)한다고 선언했으나 출발 45일전 예약및 여행사 또는 항공사대리점만 통해서 예약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어있다.

CP에어는 할인혜택 티켓의 수가 제한돼있다.

에어·캐나다의 반액티켓 세일은 매년 봄과 가을에 실시되고 있는데, 휴가철의 "피크"로 간주되는 여름철 예약상황을 조사한 에어·캐나다는 예년에 없는 예약부진에 놀라, 이같은 여름특매를 실시하게 됐다.

에어·캐나다의 게어·차이아슨 여객과 부사장은 이 기간 약450만명의 승객이 반액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있다.

토론토-뱅쿠버간 왕복 정규요금은 688달러로 6월19일부터 9월7일까지의 343달러는 작년의 399달러보다도 싸다.

◆캐나다인권헌장위원회 제리·로즈사무총장이 소수민족위원들을 불러내어 소개하고있다. 왼쪽끝이 드·코네일위원장. 그 옆은 허브·그레이상공부장관, 오른편 뒤쪽끝에 강신봉씨가 보인다.

성산교회 바자 건축기금 마련

성산교회 여전도회(회장 신종규권사)는 오는 5월8일(토) 바자를 연다.

5월중순경 예정인 성전입당예배에 앞서 여전도회는 이번 바자수익전부를 새로지을 교회당 건축에 기부할 예정이다.

성산교회는 교인 1명이 교회부지를 헌납, 자체교회를 갖게되었다.

교회주소는 1239 제인(Jane)스트릿(×Weston Rd.)

헌법축하리셉션

에트닉 2백명참석

캐나다인권헌장위원회(Wational Committe Of Human Right Charter And Freedo주최 헌법축하리셉션이 25일 저녁8시 이태리문화회관 컬럼버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2백여명의 에트닉 인사들중에는 강신봉(인권헌장위원회위원), 이근우(승공문화협회장), 양혜신(한인총연합부인회장)씨등 한인인사 7~8명의 모습도 눈에 띠었다.

연방정부 허브·그레이 상공부장관및 자유당 국회의원 수명이 특별초빙된 가운데 인권헌장위원회의 장이며 연방국회의원이 롤랑·드코네일은 동위원회의 18개 에트닉 민족위원들을 소개했다. 강신봉씨옥 17명 위원들은 트루도수상이 전하는 인권헌장증서를 각각 그레이상공부장관으로 부터 수여받았다.

그레이장관은 치사에서 "캐나다는 헌법, 에너지, 경제문제에 있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Unfinished Country)였으나 이제 독립된 헌법을 갖게되므로 한가지 문제는 완수됐다"고 말하고 트루도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계획과 경제정책에도 적극협조와 지지를 부탁했다. 그는 또 새 헌법에 인권및 여성의 권리가 성문화되어 에트닉민족의 권리도 보장되었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시간에 강신봉씨는 쾌백주의 독립주장에 대한 위헌여부와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치적, 법적조치가부에 대한 질문을 하자, 그레이장관은 "캐나다에서 정치가들의 정치적 행위는 완전보장돼 있으므로 정치척견해가 다르다고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에 위배된 행위를 한다면 응당 캐나다헌법에 준하여 법적제재를 받게될 것"이라고 답변하며 "대부분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정치가 개인의 사견에서 발생하는 것이 많은데(쾌백주 르벡수상의 의견을 지적하는 듯) 민주주의는 복합적이므로 그리 쉽게 판가름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인권헌장위원회는 트루도수상이 명예회장이며 상하원 약간명과 18개 에트닉민족대표르 구성데 있으며, 지금까지는 새헌법의 인권조항 삽입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앞으로는 성문화된 인권헌장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감시와 인권문제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게될것으로 보인다.

◆나윤연양

나윤영양도 입상 필·뮤직대회서1위

나운영(그레이스)(8살)양이 필·뮤직·페스티발(Peel Music Fastival) 9세이하 피아노 독주부문에서 1등했다.

퀸즈웨이·크리스천·스쿨 3학년 재학중인 윤영양은 피아노를 배운지 1년8개월만에 영광을 얻었다.

윤영양은 스퀘어·원 샤핑·몰안에서 기프트숍을 경영하는 나민근·엄일실씨의 1남2녀 중 둘째딸이다.

부동산 상식

불경기엔 먹는 장사 시간짧고 수익성높아

이훈모(부동산소개업)

커피숍 간이식당은 영업시간이 짧아 생활이 비교적 여유있는 사람들이나 시간적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좋다. 영업시간이 짧으니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사무실빌딩 속에 있는 경우, 그 건물속의 각 기업체의 경기에 따라 수입도 좌우된다. 어떤 특정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장소에서 영업할때는 손님에게 각별히 친절해야 한다. 손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나그네손님과 단골손님이다. 나그네손님이 많아야 수지도 많고 정신적피로도 덜할것이다.

커피숍이라고 해서 커피만 파는 것이아니라 간단한 식사도 제공하니 혼자서 하기는 힘이든다. 물론 매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업종들은 제한된 건물속에 있으니 얼굴도 타지 않고 리즈(임대계약)의 걱정도 없이 매상만 좋으면 이상적이라 할것이다.

◇ 이훈모씨

휘시앤드·칩(Fish & Chip)을 경영하는 교포수는 토론토에만 10여만이 넘으나 순수한 휘시앤드·칩은 많치않고 다른것을 겸하여 영업하고 있다. 대체로 영업시간도 짧고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휴일을 즐길수도 있다.

교포중에는 좋은 장소를 차지하여 소규모를 재미있게 이 사업을 꾸려나가는 사람도 있으나 자본이 허락하면 매상이 높은것을 사서 영업하는 것이 좋다.

권리금이 적다고 하여 파는 사람의 감언이설에 속아 이러한 사업에 손을 대면 성공하기 보다는 실패하는 수가 많다. 먹는 장사는 주로 그리스계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들은 거짓의 명수로서 그들의 말은 10%만 믿으면 된다. 햄버거·숍도 비슷하다.

다음은 먹는 장사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가장 서민적인 도니츠·숍을 보자. 비교적 근래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사업은 리즈(임대조건)가 대체로 20년의 장기로 되어있고 재고관리나 물품주문이 간단, 손님을 직접 대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24시간을 오픈한다는 단점이 있다.

(계 속)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제1회 문하생발표회

피아노·아카데미·오브·토론토

피아니스트 전인성씨와 제임스·트위디(James Tweedie)부부가 운영하는 피아노·아카데미·오브·토론토(The Piano Academy Of Toronto)가 5월9일(일) 제1회 학생 피아노 리싸이틀을 갖는다.

작년 9월 창립된 이후 발전을 거듭, 현재 50명의 문하생을 갖고 있는 피아노·아카데미는 이번 리싸이틀에 특히 한국인 학생12명의 연주를 선보인다.

리싸이틀은 이날 오후8시 헬리코니안·클럽(Heliconian Club, 35 Hayelton Ave. 블루어북쪽 욕밀지역)에서 열린다. 입장은 무료이며 문의는 968-9370.

영락교회 부흥회 강사에 고원용목사

토론토영락교회(담임 김재광목사)는 오는 5월7일부터 3일간 심령부흥사경회를 갖는다.

저녁집회는 금, 토, 일 3회에 걸쳐 저녁7시30분시작이며, 새벽기도회는 토, 일요일 새벽6시, 토요일 상오11시에는 성경공부를 갖는다. 특히 토요일 아침7시30분 조찬기도회때는 선교백주년 기념 토론토연합전도대회 준비기도로 모인다.

강사 고원용목사는 숭대 철학과, 장고교신학대학을 거쳐 미국 홀러신학교 선교학 석사및 박사과정을 이수했으며, 현재 미국 멜리 제1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영락교회 주소는 126 오코너·드라이브(126 O'Conner Dr.×Pape)

국제 간호학술대회 참가 희망자·가족 신청을 접수

대한간호협회는 8월 중순경 서울에서 개최될 제4회 국제간호학술대회 참가및 모국산업시찰을 원하는 캐나다간호원 및 그 가족의 고국방문을 신청을 받고있다.

세계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호학및 간호사업에 대한 토의및 세계간호학의 방향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한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는 78년부터 학술대회를 개최해왔다.

방문단은 학술대회참가, 산업시찰및 민속촌·제주도·설악산등지의 개인여행도 알선받는다.

연락처는 윤수복씨(968-0463)

불교의 은혜

김 삼 우

◆편집자주=5월1일 "사월 초파일"로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이다. 이날을 맞아 한국불교회 선련사 주지 김삼우스님의 특별기고 "불교의 은혜"를 게재, 불교의 오묘한 섭리에 접해볼 기회를 마련했다.

◇ ◇ ◇

사람의 특징은 생각하고 느끼는데 있다. 동양사람은 예로부터 이것을 모두 마음의 작용으로 보아왔다. 한자를 보면 생각하고, 느끼고, 뉘우치고(恨) 원망하고, 슬퍼하는 이 모든 글자가 마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모든 심리적인 작용은 말하자면 다음의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마음」을 보고 아는것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닫는것이 끊임없이 중요하게 되어왔다. 특히 불교에서는 「마음의 수행」이 종교생활의 근본이고, 마음을 깨치는것이 모든 부처님제자들의 이상으로 되어있다. 그럼 이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아(無我)로서의 마음 이다. 자기에 대한 집념이 많은 자아로서의 마음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자기를 아주 떠나버린 비아(非我)로서의 마음도 아니다. 비아의 절대적인 자기, 우주적인 자기가 무아의 마음인 것이다.

서가모니부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담겨있는 법구경(法句経)의 맨 처음에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마음이 모든일의 으뜸이다. 마음이 주가되어 모든일을 시키나니」 마음이 주인공이고 마음이 조물주라는 선언이다.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를 따로 떠나 있지 않은것을 분명히 아는것이 불교신앙의 바른길이다.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사상가요 종교가인 원효스님께서도 이 「자기를 떠나 있지 않은 마음」을 깨치어 무애해탈의 경지에서 당대를 교화시켰던 것이다. 좀 보다 큰 공부를 하기 위하여 입당구법(入唐求法)길에 올랐던 원효스님께서 어느날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을 마시고 심한 욕지기를 느끼다가 문득 깨닫고 「마음이 일어난 즉 모든일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진 즉 모든일도 없어지는 것이로구나」하고 한번 크게 외치고 마음밖에 달리 찾을것이 있으랴 하고 중국으로 가던 발길을 돌리시고 말았던 것이다.

우주보다도 크고 티끌보다도 작으며 허공처럼 텅텅비어 밝고 환하게 만물을 감싸고 있는것이 마음이다. 이와같은 「마음」의 진리를 인도사람들은 일찌기 자기들이 만들어낸 숫자의 개념인 제로(0)로서 설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제로는 그안에 모든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 Plus의 숫자도 Minus의 숫자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로는 가장 많은 숫자이기도하고 가장 적은 숫자이기도 한것이다. 그렇지만 제로는 이 모든것이면서도 제로인 것이다. 이러한 인도인의 마음에 대한 제로 관념이 중국이나 한국에 오면 유명한 대승불교의 "공사상(空思想)"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현대의 진보적인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대승불교의 입장을 받아들여 하느님을 공(空)과 무(無)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

서양사람들은 동양의 부정적인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이제 조금씩 알기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진리는 추상이나 개념 그리고 철학적인 사유에 의해서 성취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행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알아도 생사의 미망(迷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번뇌와 미망에서 벗어나 깨달음과 해탈에로 나아가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인 마음의 수행이다.

(계 속)

시

비둘기 빛 아침

—견진성사를 받는 날에

조 정 대

가슴 설레는 이 아침에
불길로 오실
당신의 흔쾌한 선물 생각하며 무릎 꿇면
주위는 온통
신비로운 바람으로 가득 차고,

당신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초대에
응답하는 내 작은 기도는
다섯살 어린 시절
장독 속에 머리 넣고
어머님께 대답하던 소리,
그 메아리소리로 끝나지 않아,

마침내
크리스마 성유(聖油)로 오늘 내 다시 나면
텅 빈 가슴은 당신 계신 작은 성전으로
이땅 끝날 때까지 남아
성숙한 한 사람으로
증언하리, 당신의 사랑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올해 미스 일본 캐라반에 시게미·아주마양이 선출됐다. 선과 미에는 말렌·모리다(우), 모미지·카이(좌)가 각각 뽑혔다. (대회장 : 돈밀즈의 일본문화회관)

프로축구를 즐깁시다

HOME GAMES AT Exhibition Stadium

Dates	Opponents	Times
Saturday, May 1	Ft. Lauderdale Strikers	8:00 pm
Wednesday, May 5	New York Cosmos	8:00 pm
Saturday, May 15	Montreal Manic	8:00 pm
Thursday, May 20	Chicago Sting	8:00 pm
Tuesday, May 25	San Diego Sockers	8:00 pm
Wednesday, June 16	Portland Timbers	8:00 pm
Saturday, June 19	San Jose Earthquakes	8:00 pm
Wednesday, June 23	Seattle Sounders	8:00 pm
Wednesday, July 7	Montreal Manic	8:00 pm
Thursday, July 22	New York Cosmos	8:00 pm
Sunday, July 25	Vancouver Whitecaps	3:00 pm
Wednesday, July 28	Chicago Sting	8:00 pm
Saturday, Aug. 14	Jacksonville Tea Men	8:00 pm
Sunday, Aug. 22	Tampa Bay Rowdies	3:00 pm

3연승의 블리자드

5월1일(토) 로더데일
5월5일(수) 뉴욕·코스모스

장 소 : CNE 축구장
입장권 : $12(A석), $9(B석), $6(C석)
※학생및 유아, 노년입장권은 반액.

입장권예매처 : 한국일보사 533-2361

Brandon Sports Co.

새로개발된

광석약수 미네랄·워터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장 손쉽게 가따야마 광석으로 아주 값진 미네랄·워터를 언제나 필요한만큼 손수 만들수 있읍니다. 온 가족이 일생을 다 즐길수있는 이 광석을 가정의 보배로 생각하지 않으시렵니까.

주문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지섭 : 530·0522
아세아한약방
(DOWNTOWN 판매처)

강문원 : 964·8590
(NORTH YORK 판매처)

●남영애 : 282·3553(오전)
284·9325(오후)
(SCARBOROUGH 판매처)

●김성지 (SIMON KIM)
KIMSEE DISTRIBUTORS COMPANY (총판매처)
전화 : 299·1888
281·8218

●INTERMESH COMPANY
(제조처)

◆처참한 주검들—범인 우의 총격에 사망한 시신을 동네사람들이 비를 맞아가며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의령 〉

殺人魔가 휩쓴 그現場엔……

낮잠자는 亂暴者몸에 파리한마리를 內緣의 妻가 손으로 치자 버럭화내

괴팍스럽고 거친말씨…가난에 劣等의식 식올리기전同居 수군수군…失意속 나날

◆초상집 덮친 만행 : 우순경은 평촌리 고 문두출(61)씨의 초상집을 덮쳐 문상객들을 무차별 사살했다. 병풍 오른쪽으로 문씨의 관이 보이고 그앞에 머리에 피를 흘리고 숨져있는 젖먹이 어린애와 2구의 시신이 보인다.

파리한마리가 大虐殺劇 불씨로

○…치안본부에 첫보고가 들어온것은 27일 새벽1시47분.

첫보고는 「경찰관이 난동을 벌여 6명이 사망했다」고 돼있었으나 안응모치안본부장이 달려나온 2시20분께는 사망자가 30명으로 늘어 치안본부간부들은 말을 잃었다.

안본부장은 서정화내무부장관이 도착하자 사의를 표명했는데 서장관은 『치안책임자인 나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해 첫 고위관계자회의부터 치안본부의 분위기는 괴롭고 무거운 분위기였다.

○…우순경의 내연의 처인 전말순씨(26)의 수첩에는 82년 1월26일에 우연히 만난 친구라고 쓰여있었고 2월8일 첫데이트라고 적혀있었다. 또 수첩사이에 끼인 낙서종이에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있다면 왜 그러나. 세월은 정말 빠르다. 내 나이 이제 26세이나여자로서 아니 처녀로서는 꽤 많은 나이인 것같다.

어쩐지 한해 한해가 지나고 정말 요즘 나는 왜 이럴까. 정말 이상하다』고 쓰여있었다.

다음은 전여인과의 일문일답.

—가정불화로 자주 싸웠다는데.

▲우순경은 26일 근무하면서 낮12시께 집에들어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던중 몸에 붙은 파리를 잡아주기위해 내가 손바닥으로 가슴을 치자 벌떡 일어나며 화를냈다. 이를 계기로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하오4시께 지서로 간후 저녁7시30분께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었다.

—집에 와서는 어떻게 했는가.

▲코피가 날정도로 나를 때려 친척언니가 뛰어와 말렸으나 언니의 뺨마저 때리는등 난폭하게 굴었다.

—우순경을 알게된 동기는.

▲우순경이 궁유지서로 전근온뒤 한달반쯤 지난2월께 이웃집에 하숙하고있어 알게돼 사귀었다. 지난3월초부터 우리집에서 동거생활을 해왔다. 나는 대구모직회사에서 여공으로 일하다 80년 9월 추석에 집에 돌아와 가정일을 돌보고 있었다. 부모들이 동거를 만류했으나 우순경이 결혼비용이 없어 가을에 식을 올리기로 하고 우선 동거에 들어갔다.

—성격은.

▲술을 많이 마시는데다 성격이 괴팍스럽고 어른들에 대한 말씨가 거칠며 자기집안이 가난해 늘 열등의식에 젖어있었다. 또 식도 올리기전에 여자집에 얹혀 살아 마을사람들이 수근거려 실의에 빠져있는 것 같았다.

○…범인 우범곤은 8년전에 사망한 전직경찰관의 3형제중 둘째. 원적은 경북 월성군 외동면 문산리 537. 본적은 부산 망미동 215의 81.

부산 금성고를 나와 K전문대 조경과에 진학했으나 76년2월 1년말에 중퇴 그뒤 해병대에 입대해서 78년 8월병장으로 제대했다.

80년 12월 순경시험에 합격한뒤 경남경찰학교 85기 수료후 부산 남부서 감만파출소에서 경찰생활을 시작했다.

81년 4월 시경경비단요원을 자청 8월 근무했으나 주벽이 심해 지난해 12월26일자로 의령경찰서로 좌천됐다.

범인 우의 가족들은 부산 남구 민락동 단칸 전세방에서 어렵게 살고있다.

…사고마을 궁유면은 의령읍에서 북쪽으로 28km 떨어진 산골로 9백40여가구에 4천6백여명의 주민이 살고있다.

면사무소 소재지인 토곡리에는 89가구 1백20여명이 살고있다. 이 일대는 의령 전씨의 집성촌으로 대부분 사망자들이 한집안 사람들이다.

〈서울本社—국제전화〉

◆중상자 수송—범인 우의 총격을 맞고 중상을 입은 주민들을 응급치료반들이 마산의 한병원으로 급히 실어나르고 있다. 〈의령 〉

◆주인잃은 신발들—느닷없는 무차별 총격으로 숨진 박인규씨 집 디딤돌 앞에 박씨가족의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실탄을 다쓰고 버린 빈 탄창도 아래쪽에 보이고 있다. 〈의령 〉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416)533·2361

새 映畵

知性人의 良心문제그린 力作

메피스토

금년도 아카데미 최우수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헝가리와 서독의 공동작 「Mephisto」는 지성인의 양심문제를 그린 역작이다. 주제가 심각하다 보니 영화도 전반적으로 둔중한감을 주며 보는 사람도 어려운 시험문제를 대한듯 화면을 열심히 들여다 봐야하고 그러고 나서도 시원한 답이 없어 개운치 까지 못하다.

히틀러의 나치 가 집권하자 독일의 많은 지성인들은 국외로 탈출하지만 함부르크의 「시골 배우」 헨드릭·회프겐(클라우스·마리아·브란다우어)은 현실과 타협한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재능과 성적 매력을 이용 출세의 길을 달리면서 마침내는 베를린국립극장의 감독자리에까지 오른다.

지성인이란 대체로 생각과 말이 많고 자기합리적이기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까지 흐르기 십상인데 회프겐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성인들은 양심을 유보할 때는 고통이라는 자기변명을 들고 나오지만 이 작품은 재사이 빠른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렬히 비난하고 있다.

회프겐은 『배우는 언어와 모국을 떠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출세를 위해선 어느 것이 현실인이고 어느 것이 배우일지 모를 정도로 화려하게 「연기」하면서 때론 속죄하듯 궁지의 동료를 구해도 주지만 그의 불쌍한 처지에 동정이 안가는 것은 결국 진실은 유보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회프겐은 연극과 양심의 충돌에 견디다못해 『나는 배우일 뿐이다』고 절규하지만 현실과 타협해 예술을 지켜가야 되느냐 또는 독재와 허위에 항거하지않는 예술은 거짓일 뿐이다는 명제는 각자에게 남겨진 숙제이다.

브란다우어의 광적인 연기야말로 작품의 내용을 공감토록 전력을 투구한 대작의 경인데 여기에 그의 후원자격인 장군역의 롤프·호페의 무생물같은 차가운 연기가 어울려 강한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처리가 미숙해 균형이 이그러져 보인다.

클라우스·만의 원작으로 이스트반·스자보감독.

▲예술을 위해 양심을 유보한 회프겐은 고위층 앞에선 가면의 웃음을 웃어야 한다.

십자가의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얻는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믿음이란 무엇인가? (4) 개혁장노교회

지금까지의 대략을 적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자 각 개인에게 "바른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바른 신앙은 "성경에서 보이신 그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성경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승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바른 신앙은 기도만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는 데서 생긴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복음 즉 기쁜소식"을 가져다 주신 분으로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신"을 보내사 그와함께 항상 거하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때 그 믿는 바 목적이 "복받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당가는 것"이라던가 "개인의 죄라는 문제를 떠나서 사회의 부조리를 쇄신한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기는 것"인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의 문제를 생각했다. 즉 우리는 바르게 믿어야 하지만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질때는 그것이 "헛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비록 바로 알고있다 하더라도 "지식으로 만 갖고있으면" 그것이 "헛되다"는 것이다. 그리고 헛된 믿음의 또 다른 예로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희한한 능력을 체험 한다던가 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신앙의 가장중요한증표라하는"기적 신앙"의 위험성도 보았다.

오늘은 또 "헛된 신앙"의 다른 예들을 생각해 보자.

예수·그리스도를 자기의 생각에다 억지로 마추려는 자들을 우리는 많이 본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베후3:16)"자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면서 기도로서 무조건 "하나님께 졸라대는" 그렇한 신앙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사려구를 써가며 하나님께 "아첨"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과 친근히 지내던 사람들이 좁은 문을 향하여 좁고 험한 길을 걸어 왔지만 좁은 문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주님이 일단 문을 닫은 후에 도착, 문을 열어 달라고 조르는 사람들의 비유가 있다. 그들은 "주여! 주여! 열어 주소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할만큼 친근한 관계를 가지면서 일생 좁은 길을 걸어왔지 않았나이까?"라고 부르짖으나 주님은 여기서도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누가13:27)"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평신도들 보다도 더욱 주님과 가까이 지내던 자들로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 종교적인 일들에 더욱 헌신하며 살아온 집사들, 장노들, 목사들 또는 선지자들 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은 다같이 "주께서 언제나 받아주실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오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우리 주께서도 사두개인 들이 전통과 아집에 사로잡혀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아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마태22:29)"고 지적 하셨다.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그 정해 놓으신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어떻게 알수있는가?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쓰셔서 성신께서 신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왕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나 예복을 입지않고 참석한 사람이 왕의 노여움을 사서 그 잔치에서 쫓겨나는 주님의 비유(마태22:1-14)가 있다. 이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실로 옷입지"아니하고 "인간의 수련과 공로"를 내세우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이 비유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다는 못지키지만) 지킬수 있는 만큼 열심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주의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약2:10)"라 하신 것이나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갈3:10)"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도리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갈5:4)"이고 이것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

참 신앙의 내용인 복음은 그것이 "굳게 지켜지지 않을때" 그 순수성과 참능력이 상실되고 만다. 그러면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

그것은 성경의 일부를 "삭제할 경우"에도 또한 쓸데없는 것을 "첨가할 경우"에도 그러한 것이다. 사도 요한도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A.D.96년 경에 쓰신 후에 그 맨 끝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요계22:18-19)"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고있는 예는 너무나도 많다. 즉 성경의 일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삭제할 경우 복음을 깎아내고 은폐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의심한 나머지 여러가지 그럴싸 한 이론을 붙여 성경의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단순히 "종교적인 문헌"이라고 하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나 근대주의 성경학자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본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꼭 같은 현상을 많이 볼수있다. 그들은 성경의 어느 부분 즉 "자기들에게 유리할듯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여타 많은 부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무시"하고 오히려 편의주의를 취하면서 생활도 하고 또 교회도 운영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앞에 더욱 "거짓된" 것이다. 왜냐하면 말과 신조로는 성경을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자기의 목적만을 위하여 성경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에 쓸데없는 것들을 첨가해서도 안된다. "외경(Apocrypha)"을 성경에 삽입시킨다 던지 "교황"이나 여타 "교회의 지도자"들의 말을 성경의 권위 위에 또는 동등한 위치에 올려 놓는 일은 말할것도 없고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한다 하여 "과학"을 성경과 동등시 하는 태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말하니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반 신도들의 사고방식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지도 않은 권위의식"을 행사, 남용하는 태도 등도 다 이러한 오류에 빠진 결과라 할수있다.

그러면 "복음을 굳게 지키며 바르게 믿는 사람"은 어떠한가?

그는 먼저 성경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그는 그곳에서 보이신 복음의 참 뜻과 그 실효를 성신님을 의지하여 거짓없이 실 생활에서 들어 낸다. 그는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품성상의 열매를 맺어가고 땅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분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크신 목적과 또 그에게 시키시는 바를 깨달아 알아 가면서 이 시대, 이 땅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들어내는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인 것이다. (다음주(1982.5.8)부터는 신앙의 기본이란? 제하에 기도란 무엇인가?를 연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몸을 드리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찌어다. 아멘(갈라디아 1:4)." —다음호(5월8일) 계속—

개혁장노교회 :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이태영 : 492-9889)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752-7771

강공선씨 협회사무장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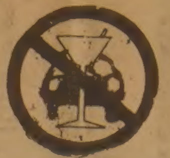
—Complaint 상담실 풀타임 가동—

◇강공선 씨

협회는 4월30일 사무실의 블루어 이전과 때를 같이하여, 그동안 조남유사무장이 대한교회 목회관계로 사임, 공석중이던 본 협회의 사무장직을 현 상담실장 강공선씨가 겸임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지난 2월부터 가동한 Complaint상담실은 업무개시 3개월만에 월평균 80-90건으로 회원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으며, 앞으로 한층더 증가될 추세가 예측되어 그 가동시간을 종전의 파트타임(정오~하오5시)에서 풀타임으로 운영키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인사회의 여러 봉사단체에 관여된 강실장의 개인적 사정과 빈번한 집행부행사및 이사회의 보임등 시간외 근무(Over Time)를 고려하여 매주 수요일은 하오1시까지만 근무하도록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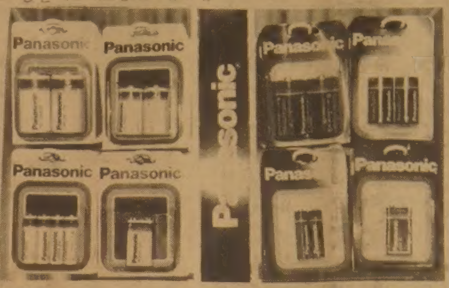
Panasonic Battery 와 계약체결

—60일간 시험판매기간 설정—

협회는 파나소닉·캐나다회사와 밧데리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파나소닉회사는 K.B.A.회원에게는 5%의 특별할인 혜택을 준다하며(Total Margin 48.5%, From Suggested Retail Price)동시에 60일간의 시험 판매기간을 설정하여 판매시도를 한 후, 판매한 양만큼의 대금을 지불하게 되며, 그 이후 지속여부는 회원각자의 자유의사이다.

60일간의 시험 판매기간 동안 No-Charge로 협회원에게 보급된 Panasonic 밧데리



협회사무실 이전

4월30일, 블루어로

지난 4년간 소재한 본실업인 협회사무실(20Mobile Dr.,Toronto)은 4월30일(금)을 기하여 한국관 건너편 627A Bloor St.W.외환은행 블루어지점 이층으로 이전한다.

지난 수년동안 급격한 성장을 본 협회는 협산유 위하여 찾아오는 외래손님과 회원방문의 급증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이전이 불가피하였었다.

새 사무실의 크기는 약 500 Sq. Feet로써 협상을 위한 소회의실과 이사회등 자체의 행사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가지게된다.

본협회는 보다 많은 회원 여러분들의 이용을 기대한다.

협동조합 설립추진에 박차

—이춘수 위원장댁에서—

지난 4월23일(금) 본협회 이사회의 협동조합추진위원회는 이춘수위원장댁에서 집행부요원및 이사장단과 더불어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모임을 가졌다.

집행부 심태섭협동조합추진부장의 현황보고및 진행보고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앞으로 설립이 실현화될때의 자금조달 문제, 타도매상과의 경쟁문제등 그 설립시기를 83년초경으로 보고 설립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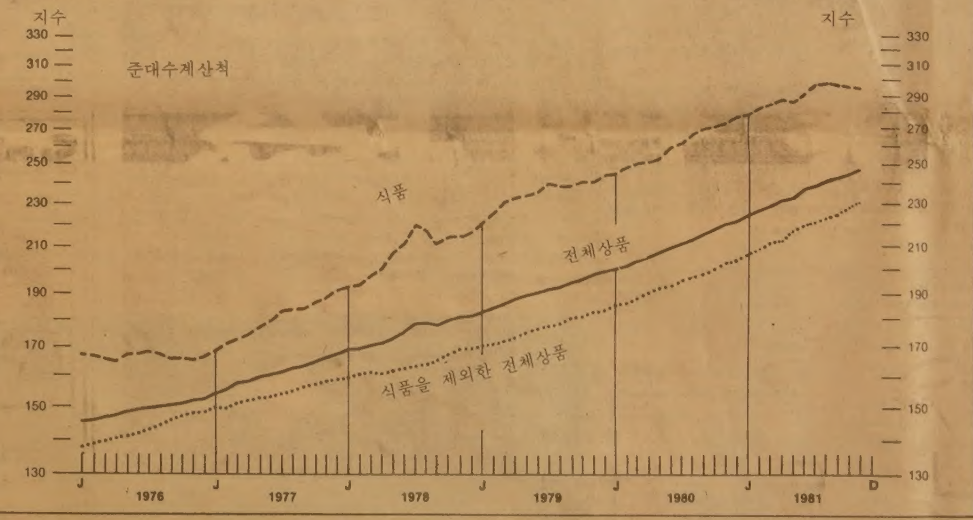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416)533·2361

450gm O.K빵(69¢) 판매급증

	OK 24oz	OK 16oz	계
3월20일	9,658	–	(주) 9,658
27일	6,149	3,838	9,987
4월3일	3,294	7,280	10,574
10일	2,540	8,967	11,507

—나날이 심각해져만 가는 물가고—

캐나다통계국이 발표한 지난7년간의 소비자물가지수표 (Consumer Price Index for Canada)



성장하는 우리 실협

성공하는 나의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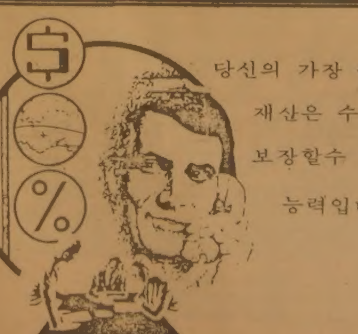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8.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 맛,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한국일보사 533-2361
예매처: 브램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실협회원만이 가입할수있는 단체상해보험



당신의 가장 귀한 재산은 수입을 보장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CAROLINA LIFE & ACCIDENT INSURANCE COMPANY 은
당신의 수입의 손실을 보호해드립니다.
◇사고 당일부터 현금으로 드립니다.
◇별도 지정인이 없는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정부나 기타 보험회사의 보상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해 드립니다.
◇직장내외를 막론하고 24시간, 365일 보호합니다.
전화224-2235 DEAN VERNON 을 불러 주세요.

SKYWAY BUSINESS MACHINES
SPECIAL 30% OFF FOR K.B.A. Members
1. 각종전자계산기 수리
2. PAPER ROLL (Each Case=100 Rolls)
3. NCR STYLE (수동식)

◆캐쉬레지스타 ◆복사기 ◆계산기 ◆각종타자기
SHARP 3M, MITA COPYSTAR, IBM
SALES-LEASING, REPAIRS & SERVIC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B)675-1295~6, (R)671-0938 김 인 환

멀티메디아 포켓 북
(MULTIMEDIA DISTRIBUTORS)
127 TELSON ROAD MARKHAM
ONTARIO, L3R 1E7
TEL. (416)495-9499

실협 회원 여러분!
우리는 한인 실업인협회 (O.K.B.A)와 협약을 체결하고 Pocket Book을 공급 써비스하게 되었읍니다.
협약내용은 아래와 같사오며 자세한 것은 언제나 전화를 주시면 세일즈맨을 보내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협 약 내 용〉

1. Net Billing – 30% Discount
2. Rebate(매 3개월 분기별)

$800이하	없음
$800-$1,500	2.5%
$1,500-$2,000	5%
$2,000 이상	7%

(Rebate는 매분기말 15일이후 지급)
1982년 2월19일
사장 Joe C. Dwek

실협사무실 이전공고

실업인협회 사무실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옵기 공고합니다.

일 자: 1982년 4월30일(금)
주 소: 627A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M6G 1K8
(한국관 건너편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2층)
전 화: 미정

사무보조원 모집

당협회의 업무량증가와 쿠폰취급 사무의 강화를 위하여 사무보조원(여자) 1명을 모집하오니 협회 사무실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警官이 住民 62명 慘殺

支署서 카빈·수류탄 빼내 滿醉속 亂射

宜寧서 피의亂動 37명負傷

4개마을 돌며 "間諜나타났다 모여라"

戰鬪服 입은채 닥치는대로 쏘고 던져

【경남 宜寧·馬山=임시취재반】 성격파탄을 일으킨 만취 경찰관이 사상유례가 없는 「대학살」 사건을 저지르고 자폭했다. 26일하오9시30분께 경남宜寧郡宮柳面土谷里에서 宜寧경찰서 宮柳지서소속 禹範坤순경(27)이 지서·예비군 합동무기고에 보관중이던 카빈M1 2정, 실탄 1백29발, 수류탄 6발등을 꺼내들고나와 한밤중에 8시간동안 이웃4개마을을 차례로 돌면서 닥치는대로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져 62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禹순경은 범행8시간5분 만인 27일새벽5시35분께 坪村里 徐仁洙씨(68)의 외딴집에 들어가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했다. 자폭당시 禹순경은 실탄4발만을 남겼다。 중경상자들은 馬山과 晋州등지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는데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禹순경은 이날 하오 8시께 매곡부락에 사는 내연의 처 田末順씨(26)와 「동네에 우리소문이 나쁘게 나있다」며 말다툼을 벌인끝에 구멍가게에서 소주한병을 마신다음 하오9시30분께 지서로 돌아왔다。

이때 지서에는 安승섭순경과 방위병2명이 근무중이었는데 禹순경은 安순경에게 「대신 소내근무를할테니 반상회에 가보라」고말해 安순경이 지서를 나가자 방위병을시켜 다시 소주를사오게해 나눠마시고 지서 무기고에서 카빈2정과 실탄1백29발을 꺼낸다음 방위병들에게 총을 겨누며 『수류탄을꺼내라』고 위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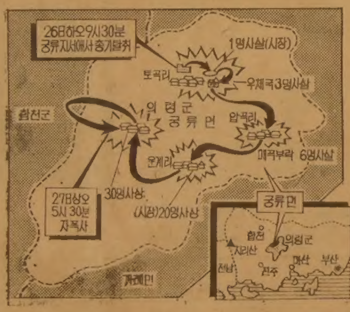
방위병이 예비군 무기고에서 수류탄6개를 꺼내오자 禹순경은 이중4개를 첨퍼주머니에 집어넣고 2개는 방위병1명에게 주면서 따라올 것을 명령했다는것。

이때 禹순경은 지서의 경비전화선을 절단하고 나갔다。 방위병 2명이 머뭇거리자 허공에 대고 총을 발사, 이에 놀란 방위병들은 그대로 달아났다。 총소리에 놀란 지서 맞은편에 사는 孫鎭泰씨(28)가 나오자 그대로 총을 쏘아 孫씨를 숨지게했다。

이慘酷…「民衆의 지팡이」 믿다가…

◇범인이 자폭한 徐점도씨(49) 집안방의 참혹한 모습。 안방에 모여있던 부녀자등 4명이 이유없는 죽음을 당했고 범인(가운데)은 갈기갈기 찢기운 경찰관 전투복으로 얼굴은 가리고 죽어있다。

◇범인禹範坤순경



事後收拾에 萬全을

全대통령 피해자補償 철저히

秘書室長 現地파견

全斗煥 대통령은 27일상오 경남宜寧郡경찰관 銃器亂射사건을 보고받고 『정부당국은 사후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해 최선의 노력을다하라』고 지시하고 李範錫 대통령비서실장 金泰鎬정무제2수석비서관을 현지에보내 사망자 유족들과 부상자들에게 弔意와 위로의 뜻을 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아침 총기사건전모에 관해 관계수석비서관으로부터 보고에 접한뒤 대단한 경악을금치못했다고 李雄熙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全대통령은 또 『이러한 사건발생은 심히 유감스러운일로 개탄을금치못한다』고 말하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심심한 哀悼의뜻을표하고 부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뜻을 전한다』고 말했다고 李대변인은전했다。

劉총리 "責任所在 명백히"

徐內務 辭意

劉彰順 국무총리는 27일상오 宜寧경찰서 경찰관 총기亂射사건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 『정부는 이번사건에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가려 국민여러분이 납득할수있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劉총리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보호해야할 현직경찰관이 수많은 주민들에게 총격을가해 殺傷시킨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수없는 만행으로서 이같은불상사가 일어난데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불의의 사건에대해 놀라움과함께 유족여러분에게는 심심한 유감과 애도의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徐廷和내무부장관은 27일새벽安應模치안본부장의보고를 받고 상오7시40분발K A L편으로 金海를 통해 현지에 도착했다。徐장관은 이에앞서 치안본부 상황실에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社會漫評

무슨말을하면 되겠읍니까…

사망자

◇土谷里(2명) ▲鄭恩淑(23·여·우체국교환양) ▲ … 의령중2년) ▲李연정(9·여·궁류국민교2년) ▲김점숙(19·여·의령고3년) ▲허말숙(22) ▲서·50·여·土谷里) ▲이상남(11·土谷里) ▲회도(10·궁류국교3년) ▲전경자(1334·여·鴨谷里) ▲안순자(42·여·鴨谷里) ▲박정 심외도(52·남·″) 坪村里) 구(6·여·雲溪里) ▲전말순 ▲전미수(8·鴨谷里) ▲이종 백(34·芝正面鳳谷里) ▲신기 락 ▲박도희(13·여·평촌) 교(6년) ▲朴정일(11·″) ▲국부 년) ▲배영순(50·여·鴨谷里) ▲김점재(39·″) ▲서인수 (68) ▲文문달(35·서울東大門區面牧洞668의14) ▲許 ▲정갑선(44·여·坪村里) ▲許 34 ▲춘서(45·″) ▲文상려(46) ▲成安郡 ▲坪東洞500 ▲徐연호 伽倻邑(26·″) ▲文화순(29·여·″) ▲문경분(18·여·″) ▲文경숙 ▲조필순(25·여·″) (51·여·″) ▲나연 ▲상(24·″) ▲여숙(24·″) ▲조이미 ▲심·徐성화(24·″) ▲文경미(11·″) ▲정인룡(41·″) ▲文병석(1·″)

부상자

▲李선희(12·여·궁류국교5년) ▲李영희(14·여·) ▲오수연(51) ▲전(6) ▲(29·여) ▲서조섭(27) ▲朴순덕(20) ▲조용수 ▲하천배(5) ▲조위남(14) ▲유명율(54) ▲이정(41) ▲순여(56·여) ▲곽수일(2·여) ▲조월(54) ▲문세정(43·여) ▲문병돈(8) ▲박기달 ▲최경조(43·여) ▲이순두(50) ▲이관수(51·여) ▲문순이(46·여) ▲이차순(46·여) ▲朴봉순(23) ▲전복순(41·여) ▲성소남(63·여) ▲종(23) ▲朴종덕(24·여) ▲徐정수(44) ▲徐이수 ◇坪村里(24명) ▲孫유정희(36) ▲배암(60·여) ▲白정악(50·여) ▲이춘수(42·여) ▲최분희(61·여) ▲白두악(71·여) ▲전종석(50) ◇鴨谷里(8명) ▲유점순(44·여) ▲강관임(42·여) ▲향박갑순(27) ▲박병영(42·여) ▲李경연(19·여) ▲수(18) ▲김일임(48·여) ▲田용길(38) ▲金필이(34·여) ▲徐규등 ▲田달배(20·여) ▲金원순(18) ▲여(28·여) ▲설순정(49·여) ▲유순자(57) ▲朴정숙(17·여) ▲朴미혜(19·여) ▲朴인길(42) ▲崔정녀(14·여) ▲朴경수(40·여) ▲孫원점(13·여) ▲愼수정(9·여) ▲孫길태(26) ◇雲溪里 ▲愼창순(50·여) (2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마야 미용실

개 업 일 : 1982년5월1일 개업 인사 및 특별 봉사 오전9시~오후8시(일요일만 쉽니다)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가 블로아에 미용실을 새로 개업하고 여러분을 모시고 특별봉사로 성심 성의껏 모시고자 하오니 한번 꼭 찾아 주시면 더없는 영광으로 모시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세일기간:5월초~6월말까지 (2개월간)

HAIR 부 문

* 캇트, 파마및 스타일 $25 & up
* 캇트 및 스타일 $9
* 삼푸 및 스타일 $8
* 머리염색 $12 & up

※머리가 상하신분 또는 헤어스타일에 항상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은 한번나와 주세요.

MAKE UP 부 문

* 신부화장
* 파티화장
* 스테이지 화장
* 심는 속눈섭전문
* 신부드레스 대여

헤어스타일이스트
김 영 주

※미용경력 14년

63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서울여행사 2 층)

☎ : 588-1480(B) 243-8026(R)

화장스페샬이스트
클라라 홍

어떻게 이런일이…

◇문제의 武器庫 참극이 스치고간 27일 아침, 봄비속에 판초를 입은 전경대원들이 宮柳지서 입구를 지키고 있다. 「정의사회구현」이라는 현판이 붙은 현관좌측 단층건물이 禹순경이 소총과 실탄을 꺼낸 무기고이다.

各黨, 현지에 조사단急派

國會내무위 30일소집… 추궁키로

民正·民韓·국민당등 各주요정당은 27일상오 긴급당직자회의와 확대간부회의를 각각열고 宜寧경찰서 경찰관총기亂射사건에 대한 대책을 긴급협의, 현지에 調査團을 急派하는한편 국회內務委를 열어정부의 사고수습대책, 경찰관紀綱, 총기관리및 관계자引責문제등을 따지기로 했다.

특히 民韓·국민당·議政同友會는 이번사건과 관련, 徐廷和내무장관등 치안책임자의 引責解任을요구키로했다.

民正黨은 이날상오 긴급당직자 회의를 소집, 金宗鎬국회내무위원장을 단장으로 黨소속 국회내무위원과 慶南출신의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지에 急派하는 한편 오는 30일께 국회內務委를 소집키로 했다.

權正達 사무총장은 『사고경위 조사가 끝나는대로 수습대책을 마련키위해 국회內務委를 소집키로 했으며 이 사건에대한 책임문제는 內務委에서 다뤄지게 될것』이라고 말하고 『이번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기강확립을 촉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民韓黨은 이날상오에 열린 긴급확대 간부회의에서 대책을 협의한 끝에 이번 사건과 관련 徐내무장관을비롯 치안본부장 경남道警국장등 치안책임자의 引責을 요구키로 하는 한편 사고재발 방지및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補償대책을 정부에 촉구키로했다.

각당이 파견한 調査團명단은 다음과같다.

▲民正黨=金宗鎬(단장·국회내무위원장)柳尙昊 梁柱植 金容大 金鍊敏 南在斗 孟殷在 朴潤鍾 李珍雨 鄭男 丁時采 玄敬大 金正禮의원 ▲民韓黨=梁在淹(단장·黨훈련원장) 朴寬用 柳寅範 柳畯相 安鍵 의원(이상院內) 李泰植(院外) ▲국민당=趙一濟(단장·정책위의장) 趙炳奎 金鍾河 姜裕植의원(이상院內) 宋業敎(院外) ▲議政同友會=李龍澤(단장)李正秀 李沐鍾

국회는 오는30일 내무위원회를열고 慶南宜寧경찰관 총기亂射사건에대한 정부측 보고를 들은후 사고원인수습대책및 총기안전관리에대한 문제점등을 따지기로 했다.

李鍾贊民正黨총무와 趙重衍民韓黨·金基洙국민당부총무는 27일하오 총무회담을열어 이같이합의하고 구체적인 議事日程등은 金宗鎬내무위원장과 각당幹事들이 협의, 결정토록했다.

이날 회담은 또 각黨이 사고현장에 보낸 조사반이 공동조사를 할수 있도록 현지로 떠난 金내무위원장으로 하여금 조사반활동을 조정토록했다.

"잔인한 世態…누가國民을 보호하나"

市民의 반응

상쾌한아침에 「宜寧학살」 소식이라니…

시민들은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않도록 철저한 치안대책을 세워야한다』면서 『사상자와 그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적인차원에서 충분한 보상과 조의가뒤따라야 할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李炳勇변호사(56·서울통합변호사회소속)=어처구니 없는일이다. 국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운영되는 경찰이 국민의생명을수십명씩 무참히 사살했다는것은 우리나라 치안의 현위치를 다시한번 확인해준것이다.

이번 사건의원인은 무엇보다도 경찰내부의 기강이 해이해져있고 상하간의 무질서때문인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치안책임자들은 책임을 통감,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타령만 하지말고 새로운 각도에서 치안문제를 다룰줄아는 자세를 가져야 할것이다.

▲姜令世씨(40·약사·서울 中區明洞2의3)=아무리 시골이라 하지만 지서경찰관과 예비군이 있었을터인데도 난동이 벌어진 8시간동안 저지하는 치안병력 1명조차 동원되지않은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다. 禹순경의 정신이상이나 성격장애여부에 관계없이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한다.

졸지에 참변을 당한 사상자와 그 유족들에대한 국가적인 충분한 보상과 국민적 인조의가뒤따라야할것이다.

"警察기강 解弛·무질서가 原因 人間탈쓴악마…아직도 가슴이…"

▲鄭宇永경정(50·鷺梁津경찰서 수사과장)=경찰관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너무나 송구스러울 뿐이다. 경찰이 좋아 투신했으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일선에서 보호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이같은긍지가송두리째깨어진듯한기분이다. 비명에 간 여러분들의 명복을 빈다.

▲趙白喜순경(40·東大門경찰서 형사계)=같은 경찰관으로 할말이 없다. 지방지서의 편제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모르지만 범인이 8시간이란 긴 시간동안 무차별 난사를 하고 있는 동안 다른 지서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희생을 줄이지 못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위급한 순간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범행을 막아야하는것은 경찰관의 의무다.

▲金顯權씨(31·회사원)=8시간동안 돌아다니며 학살을 하는동안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시골에서 경찰근무자세의 허술함이 단적으로 나타난것이다. 경비전화로 본서와 인근경찰서등으로 연락이 가능했을 터인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허둥대기만했다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柳海淑씨(50·서울道峰區道峰洞91의55·만물상회주인)=너무놀라 몇시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다. 문제의 경찰관은 사람의 탈을 썼을 뿐이지 사람이라고 할수있겠는가. 당국은 철저히 치안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지는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앞에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金大成씨(32·국제상사 영업부대리)=한마디로 기가막히는 일이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살벌하고 잔인해졌다는것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것같아 어안이벙벙하다. 범인의 개인적범죄성향이 사건의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범인을 여러면에서압박해 범행으로 몰고간 세태와 사회구조에도 문제가있다고 본다. 경찰관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보호하는 공직자들을 선발하고임용할때 개인의 기본적자질과소양을 보다 철저히 가리는 제도가 아쉽다. 또 건전한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할것으로 본다.

▲李甲生씨(63·주부·서울麻浦區西橋洞468의22)=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는지 할말이 없다. 해방후의 혼란과 6·25사변, 4·19의거등을 겪으면서 참혹한 일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이처럼 끔찍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다.

이제는 일이생길때마다 한때 떠들썩하게 대책을 논의하다가 곧 잊어버리고마는풍조는제발사라지기를바란다.

▲金賢粉씨(42·주부·서울恩平區應岩3洞533)=경찰관과 관련된사건이 생길때마다『그들도 인간인데…』라는 마음으로 있을수있는일이라고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말 다르다. 민중의 지팡이어야할 경찰관이 사생활의 불만으로 거리에 나와 선량한 주민들에게 무차별로 총질을 하다니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를 묻고싶다.

▲李相信양(22·간호원)=놀라다 못해 실감이 가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사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에 채용이됐는지 이해가 가지않는다.

"駐韓美軍역할 자부심"

부시離韓 韓美유대에 強한 신념갖게돼

조지·부시 美부통령은 27일 『미국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핵심요소가돼온 非무장지대를 수호하기 위해 駐韓미군이 담당하고있는 역할에대해 자부심을 갖고있다』고말하고 『金日成이 한국의평화통일에대한 이니시어티브를 받아들일때 통일의날이 오게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은 그날이 오기를 인내심있게 기다릴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부시부통령은 이날상오 離韓에앞서 金浦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자리에서 離韓성명을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번訪韓을 통해 韓美간의유대가 얼마나 강력한것인가를 확인할수 있었으며 韓美의유대에대해 한국에올때보다 강한믿음과 신념을갖고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人事異動

農水産部

▲비상계획관(2級상당·승진) 權亨達 ▲江原농촌진흥원장 金東稷(濟州농촌진흥원장) ▲농업기계화연구소장 宋春鏞(全南")

(27日字)

社 說

어찌 이럴수가 있는가 —警官의 銃질殺人, 그衝擊 너무크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래 가지고는 겁이 나서 살수가 없다.

경찰관이 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뜨려, 무고한 주민들을 대량 살해했으니,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산단 말인가. 茫然自失, 경악과 충격을 지나쳐 분노가 치민다. 한밤의 아비규환, 무참하게 죽어간 이들을 생각하면 몸이 떨린다.

사회가 존립하는 첫째 이유가 국민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이번 같은 사태는 바로 그 근본에까지 관계된다. 범상한 뒤처리로 수습하기에는 충격이 너무 크고, 범상하게 책임을 물어서는 그 상처를 아물릴 수가 없는 사건이다. 國政에 관계하는 이들, 나라의 치안을 책임진 이들이,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뒷수습에 나서야 한다.

即應태세 空白의 不安

보도에 의하면 범인은 26일 밤9시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5시40분까지 宜寧郡宮柳面의 4개부락을 휩쓸었다. 8시간 동안 殺人魔가 날뛰게 내버려 두었으니, 치안부재요, 경찰의 대응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증거다.

경찰의 불명예는, 동료중에서 대량 살인범을 냈다는 것 못지 않게, 그를 사살해서라도, 주민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서 심각하다. 도대체 현장가까이에 있었을 支署의 다른 경관들은 어디 있었으며, 本署의 기동타격대는 무엇을 했는가. 타격대가 출동한 뒤에도 살육이 계속되고, 끝내는 범인의 수류탄 自爆으로 주민3명이 또 죽음을 당했다. 그토록 경찰은 속수무책이었을까. 전체 경찰의 명예를 생각하여, 사건현장에서 순직한 경관이 없었음을 다행이라고 할수만은 없다.

紀綱·資質에 의구심

이번 사건을 보고 불안해지는 이유중의 큰 몫은, 이처럼 허술한 경찰의 即應태세에 있다. 만일 이번사건의 범인이 南派共匪였다면, 그들이 대도시 등에서 同時多發로일을저질렀다고 가상하면 소름이 끼친다. 여지껏지는 수류탄·기관단총을 든 탈영병이 횡행하여 사람들을 불안케했던터다. 자칫 이들이 일을 벌였어도 국민들은 꼼짝없이 당했을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은 너무나 심각하다.

일의 自初之終을 들어 보면, 경찰의 평소 태세는, 나사가 풀린듯 풀려 있었다고 해서 지나친 것이 없어 보인다.

사건당일 支署의 경관들은 班常會에 나가고 범인만이 지서를 지켰다고 한다. 그한사람이 집에서 술에 만취돼 부부싸움을 벌였다. 평소 주벽이 있었다고 하지만 支署가 빈것이나 다름없다. 支署근무가 이래도 탈이없다면 이상하다. 다른 경관들이 班常會를 지도·독려하러 나갔던 것이라면, 본래 임무외의 잡무를 떠맡긴 상부의 처사도 문제다. 경찰관의 威信을 빌어서 여는것이 班常會는 아닐줄 안다.

범인이 손쉽게 지서와 예비군 무기고에서 총과 수류탄을 들어 낼수 있었다는 사실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술취한 경찰관 독단으로 예비군 무기고까지 마음대로 할수 있을 정도라면, 총기도난·총기사고는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른다.

범인의 경력이나 성품에 비추어, 그가 경관으로서의 適格을 갖추지 못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경관으로 받아들였던 경찰의 인사제도를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경찰안에 더 있지않을까하는 의구심마저 품게 된다. 경찰관의 자질과 適性문제가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할 계제다.

또 그의 근무경력도 납득치 못할구석이 많다. 그는 釜山에서의 초임 몇달만에 서울로 전입하고, 그 몇달만에 난폭하고 주사가 있다하여 좌천된뒤,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에는 술주정꾼·내연의처·가정불화등 不適格요건을 고루갖춘자를 초기에 도태할만한 기능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釜山초임·서울轉入이 가능했던 어떤 배경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만일 이런 의문이 사실이라면, 경찰의고질인 人事不條理가 사건밑바닥에 깔려있다고 할 것이다.

責任따지고 責任져야

생각하면, 이 사회는 남의잘못따지기를 너무 허술히 한다. 바로 반년전 경관이 살인피해자의 예금통장을 훔친 사건이 터졌을 때, 여론은 오히려 경관의 곤궁한살림, 영세한 수사비에 동정을 보냈었다. 그러나 그때 따질 것은 좀더 따졌어야 했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그랬어야 경찰전체를 위하여, 또 선량한 대부분의 경관을 위해서, 더 좋았을것이다. 그래서 지금 더욱 아쉬운것은 매섭게 책임을 따지고, 뼈저리게 책임을 지는 풍토다.

사건이 너무나 처참하기에, 사건의 원인을 범인 개인의 정신질환·이상성격으로 돌릴수 있었으면 얼마나 다행이랴 싶다. 그러나 이 사건에 드러난 경찰전체—그 보다는 이 사회전반의 病理的背景은 간과하지 못한다. 權力과 힘의 濫用, 그 반사로 나타난 國民蔑視, 事理와 條理의 부재, 物質至上의 풍조가 낳은 人命輕視, 內攻한 불만을 定向없이 뿜어 내는 증오심의 팽배등은 이 사건의 뿌리에 도사린 毒素들이다.

그러기에 이 사건을 경관 한 사람, 또는 우리경찰만의 문제라고는 못한다. 모두가 참담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깊이 짚어 보는바 있어야 한다. 당국에서도 섣부르게 대처이탈것을 마련하기 보다는, 사건의 素地와 遠因을 짚어, 바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마 모든 국민은 4월26일을 가슴아프게 기억할 것이다. 경찰로서는 그 기억이 더욱 쓰라릴것이 틀림없으나, 그 아픔을 달래는길이, 비상한 노력으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것뿐임을 명심해야 할줄 안다. 과제가어려운 그만큼, 충직한 대다수 경관들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격려또한 클줄믿는다. 경찰스스로의 분발이 있기를 당부한다.

고개든 新種 해상密輸 —犯則品 燒却등 拔本策 쇄신해야

南海公海上에서 일본어선을 가장, 이른바특공선이싣고온 수억원어치 밀수품을 밤중에 옮겨받고 代錢대신 히로뽕으로 결제한 지능적 신종 국제해상밀수조직이 26일 釜山地檢특수부에 적발되어 새로운 경종을 울리고있다.

한국인과 일본인 9名이 관련된 이번 밀수의 수법을 보면 몇가지 외면못할 문제점이 돌출되어있다. 우선특공선이 싣고온 밀수품은 日製 소형녹음기, 전기면도기 같은 전자제품으로 일본서는 너무 흔해 販賣難에 빠진것들이라는 점부터 그렇다.

또 그것을받고 국내밀수범들이 치른 代價品은 향정신성마약인 히로뽕이어서 일당은 「밀수」와 「마약」이라는 2중범죄성을 띤 범행을 자행하였다. 아울러 같은수법으로 전후3차례 썼이나 2억원대이상의 일제밀수품이 양륙되어 국내밀수조직을 통해 판매된모양이니 감시망에 뚫린 큼직한 구멍이 한꺼번에 보이는것 같기도하다.

아닌게 아니라 최근들어 密輸品의 녹음 각종전자제품및 카메라등이 대량으로 밀반입되고 있어 불법적인外貨流出을 막고 우리나라 産業保護를 위해서도 적지않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있다.

이경우 그간 한때 外航船員이나 活鮮魚운반선을 통한 밀수행위가 계속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60年代에 악명높았던 海上特攻船方式에 의한 대규모 밀수행위가 또다시 성행되고 있음을 주목케 하고있다. 그에따라 세관이나 검찰 경찰등 밀수사기관은 보다 철저하게 단속과 적발태세를 강화해야 할뿐아니라 한일두나라관간의 협력에의한 보다 원천적 밀수예방대책을 촉구해야 하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일본측의 밀수단속, 특히 밀반출단속이 소홀치 않거나 虛點이 없다면 밀수 特攻船의 등장이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저들 국내시장에서는 處分難에 있는 상품이 밀반출되는 만큼 그것이 곧 국가이익이란 관점에서 그쪽단속이 소홀해지기쉽고 그틈에 多量으로 또한 빈번하게 밀반출 되는게 아닌가 의심이 전혀 안드는것도 아니다.

우리측에서 對日히로뽕 밀수범들을 일본당국과 협조아래 엄하게 단속하고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측에서도 그들의 밀수공선이 날뛰지 못하도록 단속해주기를 바라고싶다.

보태서 이기회에 밀수적발과 處罰·處理에 좀더 근본적인 재검토가 가해져야 할것임을 지적해두고싶다. 이를테면 종전처럼 밀수범을 검거처벌하고 범칙물자는 公賣處分하는 방식은 재고돼야 할것 같다.

그것은 범칙물자를 公賣하게되면 그같은 品質規格 밀수품의 市中流通을 방조하는 결과가된다. 그러므로 오히려 모두 燒却處分이라도하는 단이 상책일법하다. 일부 국민들의 外來品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성향 또한 삼가야한다.

전자제품 時計 카메라등의 國産보호하기위해서는 外製밀수품의 國內流通을 억제해야 한다. 또 86·88년의 大行事를 앞두고 밀수가 舊來하게될 악영향등 모든 害毒을 재인식해야 할것같다. 廢棄때문에 손상되는 우리의 체면도 잊어 안될 대목이다.

政局往來

◆앞으로의1백년友好다지는계기

全斗煥 대통령과 부인 李順子여사는 27일 상오8시 告別예방차 청와대를 방문한 부시美부통령내외를 맞아 작별인사를 나눴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일찍 떠나게 돼 퍽 피곤하겠다』고 인사했고, 부시부통령은 이에대해 『이번 訪韓이 성공적인 여행이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한국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歡待에 감사한다』고 대답.

全대통령은 또 『韓美修交 1백주년도 뜻깊은 일이지만 부시부통령의 이번訪韓은 한국과 미국민간에 앞으로의 1백년 友好를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레이건대통령의 親書에 감사하며 레이건대통령에게 본인과 한국민의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시부통령내외는 이어 청와대에서 헬리콥터편으로 金浦공항에 도착, 貴賓室에서 약20분동안 내외신기자들로부터 7개항의 질문을받고 특유의 유머를 섞어가며 일일이 답변.

◆各黨, 亂射사건에부산한對策회의

民正·民韓·국민등 주요정당들은 27일 宜寧의 총기亂射사건에 대해 각기 對策을 마련하느라 이른아침부터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는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民正黨은 이날 상오9시가 안되어 긴급당직자회의를 열어 해당지구당에 당원들이 헌혈등에 앞장서도록 지시하고 조사단 파견등 대책을 즉각발표하는「스피드」를 과시했다.

權正達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그것은 정부에 물어보라』고 말하고 徐廷和내무장관이 이미 辭意를 표명했다는 기자들 설명에 『장관으로서 권목이 없지않겠느냐』고 寸評했으며 羅碩昊정책위의장은 『의식개혁의 차원에서도 경찰의 쇄신이 있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劉彰順국무총리주재로 27일상오열린宜寧총기 난동사건 수습대책위원회.

"稀代의 慘變에 戰慄…철저한 사후수습책 마련해야"

民韓黨도 이른 아침부터 간부회의를 소집, 조사단을 現地에 급파하는 한편 내무위의 즉각 소집과 관계자引責을 요구하는등 즉각 조처로 對應했는데 辛相佑 전사무총장은 『稀代의 참변에 戰慄을 느낀다』이라면서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던져준 이번 사건에 철저한 사후수습책을 마련할것』을 촉구.

한편 자신의 지역구에서 엄청난 참사가 생긴데 놀란 趙一濟국민당 정책위의장은 『세상에 이런망할×의…』라며 극도의 분노로 말을 잇지 못하기도.

◆葬禮式서 접촉…20분만에 합의

27일하오 故鄭一亨박사의 社會葬이 끝난후 국립묘지에서 국회에 돌아온 李鍾贊民正黨총무와 趙重衍民韓·金基洙국민당부총무는 운영위원장실에서 접촉을 갖고 경찰관亂射사건을 다루기위한 국회내무위소집을 20분만에 합의했다.

검은 禮服차림의 이들 총무들은 구내식당에서 시켜온 샌드위치를점심으로 들면서 회담을 가졌는데 사건이 워낙 중대한데다 장례식장에서 예비접촉이 있었기 때문인지 별다른 논란없이 타결.

회담이 끝난후 李총무는 『3黨모두 내무위 소집을 주장하는 쪽이어서 쉽게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며 『사건現地도 구호와 사후대책수립에 부산할텐데 각黨에서 衆口難防식 조사를 하는게 옳지 못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野黨이나 經協양국위해 필요切感

訪日중인 柳致松民韓黨총재는 후꾸다(福田一)衆議院의장과 도꾸나가(德永正利)參議院의장을 차례로 예방, 60억달러對韓經協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자리에서 柳총재는 『서로 어려운 얘기할것없이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할 단계가 아닌가』라며 『나는 야당이지만 韓日양국의 國益을위해 經協의 필요성을절감한다』고강조.

이에 후꾸다의장은 『세상일이란 이유를 붙이려고들면 끝이없지만현재 양국정부가 하고있는 일을보면 모두 능숙하지못한것같다』면서 『自民黨에는 한국로비이스트가 참으로 많다』고 답변했다.

도꾸나가의장도 『서로 믿고 이해하면 안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비록 異見이 있다해도 「이해있는 異見」이라면 도움이 되게 마련인데 다행히도 自民黨과 民社黨은 물론 公明黨 新自由구락부 社民連도 經協을 상당히 이해하는 것같다』고 일본의회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東京27日=宋孝彬특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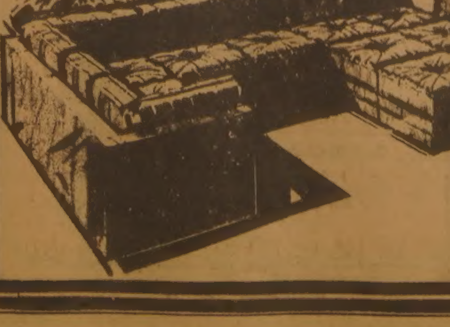
LEON' S 가구점

한국인 세일즈맨

조 석 민
KEVIN CHO

역사와 전통
캐나다 최대 규모의 WHOLESALER (SINCE 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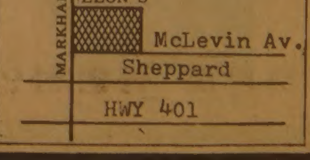
○ FURNITURE
○CARPETS－ 모든 카펱종류
○APPLIANCES－T.V.,전축, 세탁기, 드라이어, 냉장고, DISHWASHER,
스토브, 마이크로 오븐, 후리저 등등 각종 전자 제품.



※오실때는 미리 회사나 집으로 전화 약속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저녁10시까지.

20 McLEVIN AVE.
(스카보로) (세파드 × 마캄)
B) 291－3818
R) 749－9687, 746－0981



결혼예물, 보석 및 시세…
미크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深夜의 大殺傷」… 警察은 뭘했나

구멍난治安… 여기가 生地獄

亂射사건

「날벼락공포의 8시간」 평화로운 마을을 피에 굶주린 악마처럼 마구 유린하다니… 수십명의 무고한 생명이 술취한 정신착란증의 총뿌리앞에서 슬어지는사이 「치안」은어디숨어 있었다는말인가. 禹순경이 자폭하기까지 「속수무책」으로어린이까지 총알받이가될수밖에없었는가. 무장공비라도 침투해서 같은만행을 저질렀다면 뭐라고 말하겠는가. 전세계 TV와신문에 또한번자랑스럽지 못한 한국인의사건이 소개되게된 이순간 우리모두의 가슴속은안타깝고한스러움이가득찼다。

申告 1시간지나 늑장出動
범인 自爆할때까지 손못써

宜寧학살사건의 주원인은 경찰의 허술한 무기고관리에 있다。 무기고사고는 전에도 여러차례 있었는데도 고쳐진 점이 없다。

이날 하오 9시30분 만취한 禹순경이 무기고에 쳐들어 갔을때 방위병 2명이 지키고 있었다。 만약 방위병이 근무수칙을 지켰더라면 이사건은 여기서 저지되었을것이고, 기껏해야 사소한 폭행사건정도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2명의 방위병보초는 禹순경의난동에 밀려 도망치고 말았다。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이처럼 아무나 꺼낼수 있게 방치할 수 있느냐는게 문제다。

禹순경이 총을 난사할때는 반상회가 끝나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날 宮柳파출소 근무경찰(禹순경은 제외) 2명이 반상회 독려차 거리에 나갔을 것이고 총소리를 들은 것이 분명한데 10시가 훨씬 지나 형식적인 출동을 한 흔적밖에 없다。

사건이 나자 土谷里주민 李춘두씨가 전화로 9시30분께 즉각 신고를 했으나 宮柳파출소는 사건이 나고 수십명이 학살당한후인 밤10시34분에야 직속상부기관인 宜寧경찰서에 뒤늦게 신고했다。 이때는 禹순경이 이미 土谷里에서 1㎞떨어진 인근마을에서 살인극을 벌일때였다。

유사시를 대비한 경찰의 비상출동태세가 훈련된것이었다면 학살극은 土谷里한마을에서 끝날수있었을 것이다。

또 宜寧경찰서에서 도경에 보고한것이 11시10분, 도경에서 치안본부에 보고한것이 이튿날인 27일새벽 1시47분이었다。

결국 宜寧경찰서에서 치안본부까지 3시간13분이나 걸렸다는 계산이다。

그사이 일선경찰서에서는 무엇을했는지 모를 일이다。 만약 宮柳지서가 평소 지휘체계가 확립돼 있었다면 예비군등을 동원할수 있었을것이다。

주민신고로 宜寧경찰서장 崔在潤경정등이 기동타격대 37명을 인솔하고 지서직원과 합류한 것은 이날밤 10시20분이었다。 이때 禹순경은 土谷里마을에 들어가 총을 난사하고 있을때였다。

치안본부에서 사살명령이 내려진것은 27일새벽 1시47분으로 사건발생후 무려 4시간 지난후였다。 사건의 심각성을 흡게 파악했더라면 이렇게 때늦은 지각명령을내릴수 가없을것이다。

기동타격대가 도착한 후부터 자폭하기까지 4시간동안 40명이라는 병력을갖고도 禹순경을 처치하지못했던 경위도 납득이 가지않는다。 결과적으로 禹순경이 土谷里를빠져나간후에야 포위망을친 셈이된다。

27일새벽 2시30분 柳九桓경남도경국장이 도착하고 釜山에서 2백60명의 기동대가 도착했으나 禹순경이 잠적한 후였다。 경찰병력은 坪村里를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였고 禹순경이 자폭한 것은 27일 새벽5시30분께였다。

8시간위 살인극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이고 주민들은 살인마의 먹이일수밖에 없었다。

禹순경이 잠시 난동을 멈추고 잠적해있는 2시간동안 만이라도 경찰이 경계망을 신속하게 압축해 갔더라면 徐씨일가족은 구할수 있었을는지 모른다。

이번사건은 지방 일선 지파출소요원의 나태하고 검맑은 근무태도에서 사상 유례가없는 비극이 싹튼것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예비군 무기고를 근무수칙도 지킬줄모르는 방위병에게 맡겼다는 사실은 무기고 관리에 커다란 함정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恐怖… 분노… 痛哭… 숨진 교환양 정은숙양의 어머니 (가운데) 가 현장에 달려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통곡하고 있다。 옆의 여인의 표정에도 분노와 공포가 역력히 나타나있다。

道警局長 직위해제
宜寧署長·지서장·동료巡警등 拘束

내무부는 27일 宜寧학살사건의 책임을물어 柳九桓경남도경국장을직위해제하고▲宜寧경찰서장 崔在潤경정과 宮柳지서장 許澯순경사、차석 金진우경장、安송섭순경등4명을 직무유기혐의로 구속키로했다。

또 내무부는 경남도경 경무과장 金讓秀총경과 宜寧署보안과장 金영석경위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묻기위해 조사하고 있으며 宜寧서장에는 경남도경 통신과장 李鍾泰경정을 임명했다。

한편 후임도경국장에는 玉岐鎭 치안본부수사 2과장을 내정했다。

◇禹순경 범행경로

▲26일 밤 9시40분=宮柳지서 무기고의 예비군 무기고에서 카빈 M1 2정과 실탄1백29발·수류탄 6발 절취

▲9시45분=지서앞에서 행인 1명을 사살하고 宮柳 우체국에 침입 교환양등 3명사살

▲10시10분=鴨谷里 梅谷부락에침입 6명사살

▲10시35분=雲溪里에침입 집배원 일가족등 18명사살

▲10시50분=坪村里에침입 초상집을 비롯 불켜진 집만골라 27명사살

▲27일새벽 2시=다시 坪村里 서인수씨 (68) 담배가게에 침입 인질극

▲새벽 3시40분=서씨 일가족 4명에게 수류탄 2발 투척하고 함께폭사

父母희생된 學生 공납금 면제키로
文敎部

문교부는 27일 宜寧학살사건으로 부모가 희생된 학생들에 공납금을 감면조치키로하고 경남도교위에 대상자를 파악, 보고토록 지시했다。

死亡者에, 3백만원

내무부는 崔鍾鎬경남지사를 수습대책본부장으로 현지에보내 사망자와 부상자의 사후처리등 사태를 수습하고있다。 수습대책본부는 사망자에게는 조위금으로 1구당 3백만원을 지급키로했다。

日紙, 1면톱

AP、UPI、AFP、로이터등 세계 4대통신사들은 27일상오 일제히 宜寧만취순경의 총기난사사건을 서울발 긴급기사로 전세계에 타전했으며 27일자 일본의각일간지들은 이사건을 각각1면과사회면, 외신면 톱으로실었다。

鄭一亨박사 社會葬 어제 國立墓地안장

故鄭一亨박사의 사회장이 27일상오10시 유가족과 1천여명의 조객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국립극장에서 姜秉煮목사의 집전으로 엄수됐다。 故人의 유해는 경찰악대의 조가연주속에 銅雀洞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사소한 가정不和발단
괴팍한 性格에 열등의식 빠져

내연의妻 田여인과 一問一答

田여인과의 일문일답。

— 가정불화로 禹순경과 싸움을 했다는데。

▲禹순경은 26일 근무하면서 낮12시께 집에들어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던중 몸에 붙은 파리를 잡아주기위해 내가 손바닥으로 가슴을 치자 벌떡 일어나며 화를냈다。 이를 계기로 말다툼을하다 하오4시께 지서로간후 저녁7시30분께 술에취해 집으로 돌아왔었다。

— 집에와서는 어떻게 했는가。

▲주먹으로 코피가날 정도로 나를 때려 같은집에 세들어사는 친척언니가 뛰어와말리자 언니의 뺨마저 때리며 정신없는 사람처럼 다치는대로 두들겨부수는등 난폭하게 굴었다。 이때 동네사람들이 몰려들어 저런사람과 어떻게 결혼할수 있느냐며 나를동정하자 禹순경은 혼자나갔다。

— 禹순경을 알게된동기는。

▲宮柳지서로 전근온뒤 한 달반쯤지난 2월께 이웃집에서 하숙을 하고있어 알게돼 사귄뒤 3월초부터 우리집에서 동거생활을해왔다。

▲나는 大邱제일모직회사에서 여공으로 일하다가 80년9월 추석에 집에 돌아와 가정을 돌보고 있었다。 부모들은 결혼한뒤 동거하라고 만류하는것을 禹순경이 결혼비용이 없다며 가을에 식을올리기로하고 당장 혼인신고부터 하겠다고 고집해 함께 살았다。

— 성격은…。

▲술을 많이마시는데다 성격이 괴팍스럽고 어른들에게 한 말씨가 거칠며 자기집안이 가난해 열등의식에젖어있었다。 또 식도 올리기전에 여자집에 얹혀살자 마을사람들이 수군거려 심의에빠져 있는듯 했다。

亂暴하고 酒癖심해
서울勤務하다 좌천당해

범인주변 범인 禹範坤은 8년전에 사망한 전직경찰관의 3형제중 둘째。 본적은 부산 影島洞2246의8 (원적은 月城郡外東面 汶山里537)。 부산錦城고를 나와 부산산업 전문대 조경과에진학했으나 76년2월 1년만에 중퇴, 그해 해병대에 입대해서 78년8월 병장으로 제대했다(군번9408491)。

80년12월 순경시험에 합격한뒤 경남경찰학교85기로수료, 부산 남부서 감만파출소에서 경찰근무를 시작했다。 81년4월 서울시경 경비단 요원을 자원, 8개월간 근무했으나 주벽이심해 작년12월 26일자로 宜寧경찰서로 좌천됐었다。

禹는 지난 2월 대구 J모직종업원으로7년간일하다 宮柳面土谷里고향집에 와있던 전말순양 (26)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지않은채 지서부근서 동거해왔다。

禹순경과 약 8개월간 서울에서 함께 근무했던 金모순경 (35·서울시경)은 「禹순경은 평소 말이없다가도 술을 조금만 마시면 과격한행동을 했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경찰관은 「고된 특수임무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연고지인부산전출을희망했었다」고 말했다。

田여인 日記메모

禹순경의 내연의 처인 田末順씨 (26) 의 수첩에는 82년1월26일에 「우연히만난친구」라고 씌어있었고 2월8일 「첫 데이트」라고 적혀있었다。

法曹界의견
"피해자補償 정치적배려를"

이번 「학살사건」의 피해자들에대한 보상은 법률적으로는 난점이있어 정치적배려가 있어야 할것같다。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가했을경우 그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번사건을 두고 많은 법조계인사들은 정부가 법적책임을 따지기보다는 도의적, 행정적책임을 통감, 그러한 전제위에서 국가가 충분히배상해주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라는공통된견해를나타냈다。

몽둥이와 지팡이
「학살」에善行으로 贖罪한 朴泰弘순경

27일하오2시, 서울江東區明逸洞 明逸파출소에선 감동적인 광경이벌어졌다。 37년전에 헤어진 이종4촌간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극적인 상봉을 한것。 이를 지켜본 파출소 직원들과 주민들은 자신들의 일인양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이 노인들의 「만남」을 반가와한 사람은 이 파출소의 朴泰弘순경 (49·사진) 이었다。

자기일을 제쳐두고 끈질긴 추적을 벌인끝에 정사시킨 이 재회의순간을 지켜보는 그의 모습은 바로우리 사회가 그렇게도 찾던 그 경찰관이었다。

이 기막힌 해후의 이야기는 2주일전에 시작됐다。

지난14일 하오2시께 이동네 珍世할아버지(71·明逸洞67의4)가 파출소로 朴순경을 찾아왔다。 趙씨가 털어놓은 사연인즉 우연히 알게된 韓元玉씨(59·여·경기城南市大平洞111의131)가 8·15해방 때 헤어진 외사촌오빠를 애타게 찾고있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막연한 인적사항을 적은쪽지를 내놓았다。 이름은 文성은, 나이는 70을 넘었고 고향은 함남惠山郡이라는게 전부였다。

朴순경은 이때 자신이 없었지만 도와줄것을 약속했다。

그는 즉시 경찰컴퓨터에 조회, 1910년에서 1914년사이에 출생한 사람중 「文성은」이란 사람을 찾는일에 나섰다。 다행히도 같은이름을 가진 한사람이 나타났다。 그사람의 본적은 中區新堂洞으로돼있었고 주소는 浦項市龍興洞으로적혀 있었다。 浦項에 시외전화를 걸어 文씨를 찾았으나 다른곳으로 이미 전출가고 없었다。 이때부터 文씨에대한 끈질긴 추적이 시작됐다。 전국7개전출지의 동사무소에 확인을 의뢰하는한편 중구청에 직접 찾아가 호적을 열람하기도했다。 호적열람결과 文씨가 바로 韓씨의 외사촌오빠라는 확신을 갖게된 그는 文씨의 최종주소지인 恩平區佛光2洞371의 2로 달려갔다。 그렇게도 애타게 찾고있던 文씨를 만날수있었던 것이다。

朴순경은 곧 이사실을 趙씨를 통해 韓씨에게알려 극적인 상봉을 가능케했다。 이날 파출소에 나타난외사촌남매 文씨와 韓씨는 첫눈에서로를 알아보고 울음을 터뜨리며 얼싸안았다。 옆에있던 朴순경도 눈시울을 적셨다。 남매는 朴순경의 손을 잡고『죽어도 이은혜를 잊지않겠다』고 고마와했다。

그러나 朴순경은 『제가 한일이 禹순경의 「宜寧학살」에 만분의 1이라도 속죄가 됐으면 합니다』면서숙연한 표정을 지었다。 【方敃俊기자】

37년만의 상봉주선…"조그만 謝罪"

성가대지휘자 청빙

본 교회에서는 성가대 지휘자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 격 : ①음대를 졸업한분
②다년간 교회에서 성가대지휘 경력이 있는 분으로써 신앙이 돈독한분.
대 우 : 우대함
제출서류 : ①한글이력서 1통
②사진 1매
※서류는 비밀로 하며 일체 반환치 않음.

보내실곳 : KOREAN CENTRAL UNITED CHURCH(토론토중앙한인교회)
353 SHERBOURN ST.
TORONTO, ONT. M5A 2S3

토론토 중앙한인교회

전교포 사목의밤
댄스파티

일자 : 1982년 5월22일 (토요일 저녁)
시간 : 7 : 30~9 : 00—저녁식사
9 : 00~1 : 00—댄스
장소 : CONSTELLATION HOTEL(BALL ROOM)
900 DIXON RD. (AIR PORT 지역)
입장권및 정식 : 1인당 $25.00(좌석이 제한되어 있으니 표를 일찍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표판매처 : 각 한인식품점
복장규정 : 남—정장(신사복과 넥타이)
여—양장 혹은 우아한 한복
시 상 : 우수한 댄서 3쌍 선정 시상과 약간명의 행운상이 있음.
연 락 처 : MR. 박 ☎ : 661-1523 (5시 이후)
※경쾌한 라틴음악(우리 노래도 포함)과 쌓였던 잡념을 씻고 하루저녁을 마음껏 즐겨 보십시요 !

박희원과 그의악단
(6인조 라틴 캄보밴드)

강재철목사 취임및
창립 7 주년 기념예배

초 청 장

초대합니다.
본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시는 강재철 목사님의 취임식및 창립제 7 주년 기념 예배와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오셔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1982년 5월9일(일)
예 배 : 오후 3 시30분
만 찬 : 오후 5 시30분
음악회 : 오후 7 시

음악회 : 피터스 작곡 그리스도의 속죄
독창자 : 소프라노—독고숙, 앨 토—정창조
테 너—유 인, 베 이 스—곽호일
지휘 반주—유희자 박사

장 소 : 토론토 한인선교교회
주 소 : 1 Greenland Rd. Don Mills, Ont. (돈밀스동쪽×로렌스남쪽)

토론토한인선교교회

對中共戰 勝算있다

ABC농구 오늘開幕 "한국、身長뒤지나 技倆앞서"

◇한국선수단 (★표는주전)

위치	배번	이름	나이	키
G	8	洪惠蘭	25	171
〃	10	★洪英順	24	168
〃	4	★朴良桂	21	171
〃	9	方信實	23	169
F	7	全美愛	22	177
〃	11	★朴鎭淑	22	177
〃	6	★金和順	19	178
〃	12	車良淑	22	176
C	15	★朴贊淑	23	190
〃	5	權明嬉	18	185
〃	14	金福順	23	180
〃	13	金英姬	18	198

◆평균신장 1m78
◆평균년령21·67세

◇中共선수단

위치	배번	이름	나이	키
G	15	★張月琴	22	180
〃	14	陳寒雨	21	178
〃	12	★沈麗青	23	169
〃	8	印 晨	19	180
F	10	★修麗娟	25	183
〃	7	★宋曉波	24	183
〃	6	劉 淑	22	178
〃	9	용수민	23	180
〃	5	王愛琴	20	190
C	16	★柳 青	19	187
〃	11	孫瑞霞	26	187
〃	4	陳月芳	19	205

◆평균신장 1m83
◆평균년령20·9세

제9회 아시아 여자농구 선수권대회(ABC)가 오늘(28일) 하오 이곳 요요기(代代木) 실내체육관서 한국을비롯한 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된다。 한국 中共 日本의 3파전으로 압축된 이번대회서 한국은 말레이지아 印度와 함께 예선A조에 편성、29일하오2시40분에 말레이지아와 예선첫경기를 갖고 30일 하오4시20분에 印度와 대결 하는데 한국 中共 日本등 3국은 각조1위로 6強의 결승리그에 오를것이 확실하다。

이번대회의 촛점은 한국이 中共과 日本의 도전을 뿌리치고 3連覇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日本은 홈코트의 잇점을 살려 12년만의 패권탈환을 노리고 있으며 中共과 한국중 한팀을꺾어보자고 벼르고있다。

한국대표팀 善德의 申東坡감독은 日本팀에 대해 『신장이나 기술 모두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하지만 투지만은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다。

3連覇목표엔 日도 만만찮은 敵手

문제는 中共이다。中共은 80년 홍콩대회때 한국에참패한후 임원과 선수를 대폭 교체、美國과 유럽등으로 장기간 원정、전력을강화해왔다。 中共의 평균신장은 홍콩대회때보다 3㎝가 큰 1m83·1이며 주전5명중 한명(宋曉波)만 그대로 두고 4명(張月琴 沈麗青 修麗娟 柳青)을 새로 기용했다는것。 中共은 지난 76년 이후 6년만의 패권탈환을 위해 한국에 최대의 도전장을 낸 셈이다。

◇80년 9월 홍콩서 열린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때 한국과 中共이 열전을 벌이고있는 장면。한국은 101―68로 대승、우승을 차지했다。

개최지 日本서 한국優勢점쳐

그러나 한국은 中共에 계속 우위를 지키면서 3連覇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한국과中共대표팀간의 여자농구 역대성적은 6전5승1패로 한국 우세。76년 제6회 ABC에서 패한뒤 한국은 계속 4연승을 올리고 있다。 한국―中共의 대결을 앞두고 이곳에서는 6―4로 한국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한국은 신장에서 中共에 뒤지지만 개인기가 앞서있다。 이번 東京ABC의 판도는 오는 11월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 경기대회와도 직결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東京27日=李基洪특파원】

北一 연속7安打 猛爆

대통령배 高校야구 東山을 焦土化 5-1

◇물거품되는 홈인 光州一高와 大田高의 대전。2회말 大田高공격에서 8번 李文載의 내야땅볼을 光州一高 유격수가 놓치는사이 3루주자에 이어서 2루주자 安奭源이 홈으로 뛰어들다 태그아웃되고있다。

한바탕의센 소나기였다。3회말 선두타자 1번 趙龍鎬로부터 비롯된 北一高의 안타 폭우는 7번 趙光衡까지 이어져 고교야구에서 볼 수 없었던 연속 7안타의 대기록을 세웠다。北一高는 27일 서울운동장에서 속행된 제16회 대통령배쟁탈전국고교야구대회 2일째 1회전경기에서 3회말5번 金光允의 3루타 2번 任學彬의 2루타를 포함한 연속7안타로 3득점、승기를 잡아 東山高를 5―1로 제압했다。

北一 趙龍鎬 大會 첫홈런

趙龍鎬는 4회말의 대회1호 솔로호머를 비롯한 4타수4안타의 맹타를날렸으며 우완에이스 安聖洙는 9회동안 2안타1실점으로 선방했다。 성인야구서는 77년4월11일 企業銀이 農協과의대전서 연속8안타、80년10월28일 야구대제전서 全中央이 全培明을상대로 연속9안타를 기록한바있다。

信一高는 전원안타(14개) 매회 안타에다 주전9명중8명이 타점을기록하는 일방공격을 펼친끝에 心石綜高에 9―1、8회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

光州一 2점홈런 大田제쳐

이날 光州一高는 3회초1死후 유일한 3년생·출전선수인 4번朴哲祐의 좌월2점 호머로 전세를 뒤엎고 大田高에 9―1로 8회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 北一은 지난해 우승팀 群山商高와、光州一高는 東大門商高와 각 2회전에서 8강진출권을 겨룬다。 1회초 2번 鄭美孝의 우전안타로 시작된 信一高 공격은 8회초 2死후 3번 吉洪主가 좌익수 키를 넘기는 통렬한 2타점 3루타를 날림으로써 9명 전원이 안타를 기록했다。

◇제2일1회전

신일고	001	140	03	9
심석종	000	010	00	1

〈8회 콜드게임〉

동산고	000	010	000	1
북일고	003	110	00×	5

▲홈런 趙龍鎬(4회·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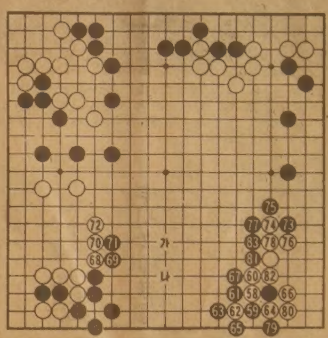
광주일	003	000	42	9
대전고	010	000	0×	1

〈8회콜드게임〉
▲홈런 朴哲祐(3회2점·광주일)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8局 第4譜 58~83 (각5시간 덤5집반)

白(4段) 鄭壽鉉〈2勝3敗〉
黑(7段) 河燦錫〈2勝2敗〉



여태껏 黑이 판세를 리드한것으로 보여졌고 또河7단자신도 그런확신을 했기때문에 비교적「유유자적」한 태도로 두고있었다。 그런데 鄭4단인즉、白58로 바깥쪽에 붙이게 되어서는『白도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다。 바둑은 쉴새없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상황의진전에 따라 형세가 자연 부침하기 때문에 이같은 견해의차이도 없을수없다。 다만 그형세판단에있어 어느쪽이 더확실하며 또이에따르는 작전은 어떤 것이냐가 문제이다。 그리고 바로 이문제는 白의 대실패、黑의대성공이란 양상으로 현실화했다。 보다시피본보黑83까지하변에서 중앙에 걸친 黑의대세력은 一當百이다。 일은 白58이하黑67까지의 정석으로 黑의좌우가 똑같은 굳이되었을 때 白68로 젖힌수에서 발생했다。

黑、大勢力을 形成

鄭4단 자신도 국후에 한탄을 마지않으며『白68은 어디보다도「가」의 곳에 두어 黑의 세력을 일단제한한 다음 黑「나」때 68로젖히는 것이 절대였다』는 중론에 승복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하기야 白도 68이하72까지 좌하측에 근30집을 확보했으니 지금까지 공배만을 둔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黑73에대해 직접 白74로 뛰어붙인수는 그렇더라도 76으로 막은수가 제2의 문제수였다。 이바람에 黑은 77이하 83까지 이자체만으로도 기분이 통쾌한 조임수로 삽시에 중앙천지를 지배하게 되었다。 白76은 의당 77자리에 뻗어 중앙黑세를깨야했던 것이다。 좌우간 白은 위기를 자초하며 고전이다。【一凡】

나의 이력서

金蘇東 (題字 金蘇東) ㉟

1936년봄、우에노의 벚꽃이 한창 피었다。李箱은 아름다운 동경의 벚꽃도 못보고 쓸쓸히 혼자갔다。내가 동경을 떠나올때 구단시다 초라한 2층셋방에서 그는 여윈 손으로 내손을 잡고 작별을 아쉬워했다。곧 다시 올것을 약속하고 나는 홀홀 떠나왔다。서울에 온지 한달이 못되던 어느날 그가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벚꽃처럼 살다가 벚꽃처럼 떨어진 그의 일생이 마음 아프게 불쌍하다。고독한 인생의 길을 나그네처럼 동경에 왔다가 나그네처럼 훌쩍 떠나버렸다。

또 한사람의 알뜰한 친구가 가버렸다。서울에서 동거하던 여인이 동경으로 가 마지막으로 그를 전송하고 왔다。

그후 세월이 흘러가고 그의 작품들이 하나하나 날개를 펴고 우리문단을 비상할때마다 나는 눈시울이 뜨겁도록 반갑고 그리웠다。운경이란 사촌아우가 있었는데 그의 소식도 알길이 없다。

結婚과 새살림

28세때 지금의 妻와 呂運亨씨의 主禮로

1938년 봄、나는 28세 때 呂運亨선생의 주례로 경성부민관에서 현재의 처와 결혼식을 올렸다。고 김천욱과 김병훈 고보동창들이 들러리를 섰다。동창 任周彬(작고、任興淳씨의 장남)군의 주선으로 우리 신혼부부는 온양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신정관이라는 온천여관에서 첫날밤을 보냈다。

이날부터 내 새로운 인생이 탄생된 셈이다。이후 1945년 8월15일이 오기까지 8년간、답답하고 억압당한 나날이 계속되었다。아내를 시골에 남겨놓고 서울로 올라온 나는 우선 관철동에 방하나를 얻었다。이로부터 나는 서울의 고아가 된 셈이다。어쩌게 많은 총독부의 억압속에서 한국청년들이 뻗어나갈 길은 거의 막혀버린시대다。유능한 영화인들은 조선영화통제회사에 흡수되어서 그들의 지배하에서 모두가 인형처럼 조종되었다。제작자 李載明、감독 李炳逸、李明雨、녹음 李弼雨등 많은 영화인들이 예술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꼭두각시 처럼 움직였다。1936년 춘사 羅雲奎가 간 이후 조선총독부의 압력과 통제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갔고、1940년 대에는 심한 물자부족속에 군사력비축을 위한 일본제국주의의 광분은 심해갔다。1937년 7月7日、일본이 北平교외에 있는 蘆溝橋에서 中日간의 군대충돌을 야기시킨 이후 일본은 중국대륙각지에서 막대한 군용물자를 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노구교사건으로 부터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까지 만 4년 한반도의 경제사정은 말이 아니었고、물자통제와 정치적압력은 더욱 심해갔다。한국인 대학생의 취직은 하늘의 별따기며 예술활동이나 영화같은 것이 그들의 안중에 있을리없다。전쟁을 위한 영화、황국신민으로서의 조선인으로 영화에 등장시키는등 그들의 만행은 말이 아니었다。영화「망루의 결사대」、「너와 나」등은 다 이런 류에 속한다。

◇1938년봄 나는 呂運亨선생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高普동창金鐵郁과 金秉勳이 들러리를섰다。

홀로上京 解放때까지 답답한생활

映畵도 총독부의 戰時統制로 위축

절대량의 쇠가 모자라는 일본의 군부는 무기제조를 위해 한반도의 쇠붙이를 거두기 시작했다。어느 지방(慶北線철도)에서는 레일과 철교를 철수해갔다。정신을 잃은 미친놈들이다。

이러한 경제악순환과 표독한 식민지강압정책속에서 자유스러운 예술활동이란 있을 수도 없고 또 생각할 수도 없다。내가 있던 하숙집 주인은 당시 주연여배우로 이름을 날리던 玄舜英의 집이다。方漢俊감독이 연출한「한강」이란 영화에 주역으로 출연한 장본인이다。이금룡、윤봉춘등이 출연한 1938년도 작품이다。梁世雄(납북)촬영、李鍾永감독(작고)제작의 흑백무성영화로 새시대의 교통수단과구시대의 나룻배가 업을 둘러싼 세대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현순영은 홍계명 감독의 「청춘부대」와 방한준감독의 「한강」에 출연했으나、이때는 이미 조선권번의 기생으로 전락했던 때다。

流星의 賦 ＜369＞

고독한 英雄 ㉔

李炳注 作 李友範 畵

신불에겐 무언가 믿는 것이 있는 모양이었지만 홍계남의 마음은 내키지 않았다。

『신불、나는 자네를 그만한 목적으로 위지(危地)에 보내고 싶지 않다。화약이 없으면 조총을 쓰지않으면 그만일세。언제 우리가 조총 믿고 싸움을했나』하고 계남이 신불을 만류했다。그러나 신불은

『조총 한자루가 궁수(弓手) 백명을 당하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보지 않았읍니까。우리가 왜놈에게 이기는 방법은 놈들의 조총을 뺏어 놈들에게 불총알을 먹이는 수단 밖에 없읍니다。제겐 책략이 있읍니다。더는 말씀 마시고 홍부장님의 서장(書狀)을 만들어 주옵소서』하고 물고 늘어졌다。

『그럼 먼저 그 책략을 말해보게나』계남이 물었다。

『그건 돌아와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신불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그 고집을 억지로 꺾으려다간 좋지 못한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계남은 문장에 능한 송지문을 불러 다음과 같이 구술하여 서장을 만들었다。

『우희다수가 대장에게 고하노라。본인이 일본에 있었을 때의 후의(厚誼)를 감사하기엔 귀하들의 우리나라에게 대한 행패가 너무나 무심하오。귀하는 제장(諸將)과 의논하여 즉시 병을 거느리고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시오。그 길만이 귀하들이 취할 길이오。가능만 하다면 귀국과 우리의 화의를 위해 의논하고 싶소。그래서 나의 부하 신불을 귀하에게 보내니 회답을 하시오。동시에 하나의 청이 있나니 나의 소중한 제루가 한섬부중에 있어 신불로 하여금 그안부를 살피게 하고 싶소。신불이 한섬에 머무는 동안의 행동에 지장이 없도록 귀하의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오。신불은 종자 열명을 거느리고 갈 것이오。그 종자들에게 대해서도 같은 배려가 있을 것으로 믿소。나는 일본에 머무는 동안 귀하의 나라가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있을때 산하겸신(山下謙信)과 무전신현(武田信玄)이 견원(犬猿)지 사이의 숙적(宿敵)이면서도 무전의 나라가 산국(山國)이므로 소금이 없어서 낭패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산하가 무전의 나라로 소금을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소。내가 이 서신을 쓰는 것도 귀하에게 산하와 같은 마음먹이를 기대하기 때문이오。앞으로 원하는 바는 시일을 끌어서 천연하여 죄악(罪惡)을 거듭할 것이 아니라 한시바삐 우리나라에서 철거하는 일입니다。피차의 불행을 무슨 까닭으로 계속 견디어야 합니까』

여기까지 불러 놓고 홍계남이 잠시 눈을 감고 있더니 다시 다음과 같은 문면을 덧붙이도록 했다。

『창천지하(蒼天之下) 백세의 인생이 없는 것이어늘、그 수유(須臾)의 광음 속에 살며、위론 조상을 욕되게하고、아래론 만대(萬代)의 후손으로부터 원망을 살 행동을 할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심히 유감되는 일이오。앙시북악(仰視北岳)하고 조망한강(眺望漢江)하는 일야(日夜)에 귀하도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이로다。임진 유월의 밤 잔월을 바라보며 홍계남 쓰노라…』

구독신청은 533-2361

주간女性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97＞

朴婉緖 作 金光培 畵

明暗 ㉛

오욱이는 버스값만 내주고 뒤도 안돌아보고 가버리는걸 인재가 헐레벌떡 따라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그럴수록 오욱이는 새침하니 경계하는 눈치였다。

『보아하니 한동네같은데 댁을 가르쳐 주십시오。그러면 내일 틀림없이 버스값을 돌려드리겠읍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숫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원이라도 청할것처럼 공포에 질린 얼굴이 됐다。그제서야 그의언행이 계획적인 치한취급을당하기 알맞다는 걸 깨닫고 아차 싶었으나 만회할 방도가 없었다。그때 그날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에게 일제히 발급해준 명함 생각이 났다。어둠속에서도 그건 풀먹여 곱게 다림질한 여학생의 깃처럼 신선하고 빳빳해 보였다。그는 그것을 처음으로 요긴하게 써먹게 된데 무한한 기쁨을 느꼈다。

『이런 사람입니다。회사로 한번 꼭방문해주십시오。오늘의 빚을 갚을 기회를 갖고싶습니다』

이한마디면 족했다。더이상 긴말 않고 헤어진 며칠후 회사로 찾아온 여자에게 그는 구내식당에서 식권으로、오무라이스를 대접했고、여자는 아무리 버스값으로 맺은 인연이라지만 그것으로 깨끗이 끝나는게 서운했던지 다음에 다시 들러 코피를 사겠다고 졸랐다。

같은 동네에 살려니 짐작하고있었을뿐 서로의 집은 아직 모르는채、버스에서 만나는 우연도 다시는 없는채 그후 그들은 가끔 전화도 하고 전번에 얻어먹은걸 갚는다는 핑계로 만나서 번갈아 점심이나 차를 사는일을 되풀이했다。

수지와는 대조적으로 키가 작달막하고 화려하지않은 대신 자세히 뜯어보면 오목조목 귀염성스럽고 천진해뵈는 오욱이를 만나는게 인재는편안하고 즐거웠으나 헤어지면 곧 잊어버렸다。그가 혼자있는 시간을 차지할수 있는건 수지밖에 없었다。

『빚진 거 갚으실래요?』

인재가 빚진 기분이라고한걸 이렇게 받는걸 보면 또만나자는 소리같았다。

『암 갚아야하구말구요』

인재는 일부러 이렇게 선선하게 대답함으로써 당장나오란 소리를 미루려들었다。오늘은 수지와 만나야할것 같았다。못만나도 수지를 기다리는 외에 딴짓을 할 여유가 없었다。

『졸업축하로 점심 사고싶어요』

『빚진 건 난데 그러면 안되지。내 호남 톡톡히 한턱 낼테니 기대하고 있어요』

『실은 저 지금 인재씨 회사 근처에 와있어요。점심시간에 뵙고 가려구요。잠깐이면 돼요。점심도 웃날 얻어 먹을께요。졸업선물로 시시한 거 하나샀거던요。드리고 가고싶어요』

『그래?미스 최、날정말빚무섭이로만들 작정이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론 좋았다。뱃속이 근질근질하고 입이 벌쭉벌쭉 열려서 점심시간까지 잔뜩 어금니를 물어야했다。점심시간까지 수지로부터의 전화는없었다。오후에야 설마 무슨연락이 있겠지。

낮에 오욱이를 만나고 저녁에 수지를 만나겠거니싶자、그 빌딩내 도처에 있는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남성적인 매력을 더해보였다。그뿐이 아니었다。점심시간이 되기가 무섭게구내식당 놔두고 분홍빛 대리석 바닥을 경쾌하게 미끄럼쳐 밖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동료사원들이 하나같이여유(餘裕)에 넘쳐보였다。

巨龜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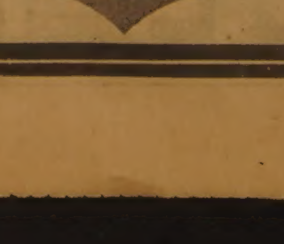
주소 : 5 BETHRIDGE RD.
전화 : 742—1618

○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읍니다.
○ 은은하고 감미로운 음악…
○ 홍겨운 댄스를위한 노래가락…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기간 : 4월27일(화)부터 매일공연
(월요일만제외)
오후9시— 새벽1시

〈영업시간〉 월·화·수 : 오전11~ 새벽1시
목·금·토 : 오전11~ 새벽2시
일요일 : 오후2시~ 새벽1시



웨트레스급히 구합니다.
742—1618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美의 對韓防衛는 확고"

全대통령、부시美副統領과 단독要談

"美의 安保지원·經協긴요" 全대통령

"對北韓정책 현재론不變" 부시副統領

全斗煥 대통령은 26일상오 청와대에서 일요일인 25일 來韓한 조지·부시美부통령의 예방을 받고 약55분간 단독要談、韓半島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전반과 양국간의 우호협력증진방안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全대통령과 부시부통령은 이날 書齋에서 가진 단독요담을 통해 공산주의세력의 팽창勢를 함께 우려하면서 자유진영이 결속해 이에 대처해나갈 필요성이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李雄熙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레이건大統領 親書도 전달

부시부통령은 특히 이자리에서『미국朝野의 한국에 대한 好感은 확고하다』고 미국의 對韓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對北韓정책에는 현재로서는 여하한 변화도 있을수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것으로 알고 있다고 李대변인은 전했다。

全대통령은 이에대해『한국이 당면한 가장 긴요한 문제는 방위력증강과 이를 뒷받침할 경제력의 강화』라고밝히고『미국의 지속적인 安保지원및 경제협력과 기술移轉등이 필요하다는점을 강조했다』고 李대변인이 말했다。

李대변인은 그러나 이날요담에서 韓日經協문제와 釜山美문화원 방화사건등 최근의 韓美관계에 관한 거론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全대통령과 부시부통령은 요담이 끝난뒤 소접견실에서 참석자들과함께 약17분간 인사를 나누며 환담했으며、이자리에서 부시부통령은 미국의 對韓방위공약을 재다짐하고 한국이 국민和合의 방향에서 안정회복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레이건美대통령의 親書를 全대통령에게 전달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대식당에서 부시부통령내외와 수행원들을위해 약1시간40분동안 오찬을 베풀며 환담을 계속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午餐에서 연설을통해『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미국의 직접적인 安保협력은 말할것도없고 다방면에 걸친 경제협력은 우리의 힘을 기르는데 있어 매우긴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지적、『이러한 협력관계는 다만 當面의 필요에서 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영원한 同伴者관계를위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深化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시부통령은 이에대한 답사에서『우리는 北韓에 대한 대통령각하의 창의력있는이니셔티브를 잘알고 있으며、그들 공산주의자들이 협상테이블로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韓半島에 깃든 평화를 유지하려는 한국군과미군병사들의 아낌없는 노력은 우리의 계속적인 민주주의및 正義의 추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는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단독요담이 진행되는 동안 영부인 李여사는 부시부통령부인을 별도로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부시부통령의 청와대예방 및 오찬에는 한국측에서 劉彰順국무총리 盧信永외무장관 柳炳賢駐美대사 李範錫대통령비서실장、美측에서 워커駐韓美대사 머피 美부통령비서실장 홀드리지국무성 아시아·태평양지역담당 차관보 다이크부통령 安保담당보좌관 그레그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 웰치부통령 특별보좌관등이 배석했다。

레이건大統領 親書全文

대통령각하

이번 訪韓하는 부시부통령에게 韓美수교 1백주년을 경축함과 아울러 각하와 한국국민에게 본인의인사를 전달하도록 했읍니다。

부시부통령의 이번 訪韓은 우리양국과 양국국민들의 긴밀하고도 우호적인관계를 매우 적절하게 상징하고 있으며、이는 또한한국에대한 침략을 저지하고 東北아시아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하는 미국의 결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이는 또한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과거 그들의 생명을 바친 용감한 한국과 미국인들의 기여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각하께서 작년 취임하신 이래 국민의 화합을 위하여 취한 조치들은 아주 고무적인 것이라고 본인은믿고 있읍니다。본인은 한국에 있어서의안정회복이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韓美수교1백년을 맞는 이해에 한국국민들에게 본인과 미국국민들의 인사를 전해주시고、다음 1백주년을 함께 시작하면서 한국민들에게 부유하고 번영하는 미래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희망도 아울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2代국회때 당시 닉슨美부통령의 국회연설에 이어 26日하오 美부통령으로서는 두번째로 부시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할때는 양국간의「血盟관계」를 재확인하듯 10여차례나 뜨거운 박수가 일기도했다。

"全대통령 統一제의 北韓호응 促求한다"

부시美副統領、國會연설

부시美부통령은 26일『한국은 미국의 가장중요한 盟邦의하나이며 미국이 한국에 와있는 목적은 우리 양국이 쟁취하기위해 그토록 힘들게 싸웠던 평화를 보존、유지하는데 있다』고 강조하고『미국은 金日成이 또다른 침략을 감행하여 시계바늘을 32년전으로 되돌려 놓을수 있게끔 한국에서 물러설 의향은 없다』고 선언했다。

부시부통령은 26일하오 국회본회의연설을통해『본인은 이기회에 金日成에게 全斗煥대통령의 통일提議에 호응하라고 촉구하는바』라고 말하고『미국은 한국과함께、북한과 더불어 새로운 구상을 기꺼이 토의할것이며 우리는 단독으로 북한과 토의할 의향은없다』고 밝혔다。

부시부통령은 이날 연설이 끝난뒤 귀빈식당에서 국회의장단과 3黨총무등 국회간부들과 간담회를갖고 국회앞뜰에 기념식수를 했다。

양국懸案 논의 劉총리·부시會談

劉彰順국무총리와 부시美부통령은 26일상오 중앙청에서 회담을갖고 韓美修交1백주년을 맞은 양국간의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한편 경제협력등 양국간의 懸案에 관해 협의했다。

宗教界·언론계등 각계人士와 朝餐

조지·부시美부통령은 26일아침 숙소인 서울貞洞美대사관저에서 한국의종교계·학계·언론계등 각계인사와 在韓미국인등 30여명을 초청、레이건 행정부의 人權정책등 최근의 韓美관계를 설명했다。

이날 朝餐에 참석한 한국측人士20명은 다음과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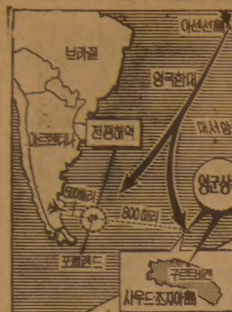
초청된 23명중 李萬甲서울대학원장 白樂晴 서울대교수 소설가 朴景利씨등 3명은 不參。

▲趙容述 한국교회협의회장 ▲金觀錫 CBS사장 ▲朴烔圭 기독교장로회총회장 ▲李愚貞 한국교회여성협회인권위원장 ▲趙承赫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장 ▲尹恭熙 가톨릭光州교구장 ▲黃晳性 가톨릭大田교구주교 ▲李烈模 한국일보논설위원 ▲權五琦 동아일보주필 ▲李揆行

英특공대 南조지아島 탈환

아르헨과 첫武力충돌…2시간交戰

아르헨側선 "內陸서 戰鬪계속" 주장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25日AP·AFP=聯合】영국군은 24일 포클랜드위기 발발 22일만에 포클랜드群島동남단 사우드 조지아島에 상륙작전을감행、2시간동안의 치열한 교전끝에 아르헨티나군의 항복을받아내고 이섬을 탈환했다고 존·노트영국국방상이 발표했다。

노트국방상은 이날 기쁨에 넘친 대처수상과 함께 수상관저밖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소수의 영국해병특공대가 다수의 군함과 보급함들의 엄호아래 26일0시(한국시간)를 기해 헬리콥터편으로 사우드조지아島의 주요항구인 그루트비켄港에 상륙、2시간만에 이섬을 완전장악했다』고 밝히고『아직까지 我軍측의 사상자는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관영 텔람통신은 우루과이의 아마추어햄무전사의 전언을인용、이날 상륙작전중 영국헬리콥터 한대가 격추됐으며 승무원은 전사했다고 보도했으나 확인되지않았다。

레이드港도 점령

【런던26日聯合=特約】사우드조지아섬에 상륙을 감행한 영국군은 그루트비켄港을 무력탈환한데 이어 레이드港에 있는 아르헨티나 제2의 전초기지를 점령했다고 영국국방성이 26일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군사평의회측은 레이드港에있는 아르헨티나의부대가 최후의일전을 준비중이라고 25일밝힌바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26日AP·AFP=聯合】아르헨티나군은 영국군의 침공으로 사우드조지아섬의 원래 위치로부터 후퇴、섬의 내륙지역에서 영국군과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고 아르헨티나정부가 25일주장했다。

아르헨티나의 집권 군사평의회는 이날 존·노트 영국국방상이 런던에서 지난 3일 아르헨티나군에 의해 점령됐던 사우드조지아섬에 영국해병대가 진주、그루트비켄항을 재탈환했다고 발표한지 수시간뒤 성명을 통해 그같이 말했다。

이 성명은 사우드조지아섬 주둔군과의 통신이 전술상의 이유때문에 두절됐다고 밝히고 영국군의 초전승리는 병력면에서의 현저한 우세때문이나 영국군이 이섬을 완전장악한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對英협상 중단

아르헨外相、헤이그와 會談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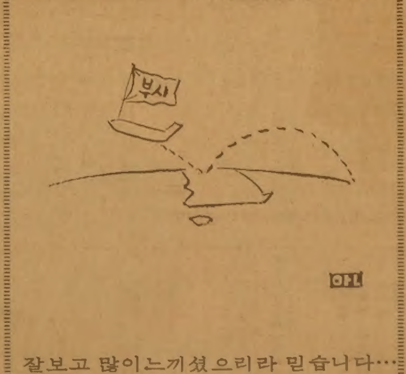
【워싱턴25日聯合=聯合】니카노르·코스타·멘데스 아르헨티나외상은 25일 아르헨티나정부가 이날 영국군의 사우드조지아島 기습작전때문에 포클랜드군도의 위기해결을 위한 협상을 중단한다고 [illegible]다。

코스타·멘데스외상은 이날 헤이그美국무장관과 회담、분쟁해결을위해 새로운 구상을 제의할 예정이었으나 헤이그장관과의 회담을 연기한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南조지아島의 아르헨軍

◇英國기동함대의 일부가 사우드 조지아島공격거리안에 진입한것으로 알려진가운데 포클란드주둔 한 아르헨티나병사가 22일 대공포결에서 주위를 경계하고있다。【포클랜드군도24日UPI聯合=聯合】

社會漫評



잘보고 많이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地平線

넓이는 남한땅의 약 60%쯤 되는 6만여평방km지만 허허 벌판의 사막이다。그곳의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오가는 유목민 6~7만명이 살고있는 곳이 시나이반도다。모세가 이스라엘민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았다는 산이 유명한 시나이산이다。서기5백30년 로마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황제가 여기에 유명한 카타리나수도원을 세웠다。▼시나이반도는 전통적으로 이집트왕국의 땅이었다。그러나 이지역이 사라센의 판도안에、이어서 터키제국의 판도안에 들어갔다가 이집트의 통치권이 회복된 것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였다。48년 이스라엘이 성립되면서 늘 충돌이 계속되다가 수에즈 동란때 이스라엘이 처들어 온일도 있었다。이때 이스라엘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 시나이에서 철수했었다。▼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에서 철수한 것은 그러니까 이번이 두번째다。이스라엘과의 접경은 앞으로 노르웨이의 프레데릭·불·한센장군이 이끄는 11개국의 다국적 감시군(MFO)이 지키게된다。인원수는 2천6백여명、첫1년동안에 2억2천5백만달러가 들게된다。이중에서 미국이 인원의 절반과、돈의60%를 떠맡을 예정으로있다。▼다국적감시군을 위해 이탈리아는 3~4척의 연안감시선을 보내고、노르웨이는 3명의 참교를 보내고있다。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헬리콥터부대、영국은 35명의 본부요원、프랑스는 40명의 인원과 경비행기 그리고 수송기를 보내고있다。피지、콜롬비아、우루과이、네덜란드는 각각 병력을 파견하고있다。이 반도에 쏠린 국제적 관심을 알만한 일들이다。▼이 지역의 사막은 모래밭이 아닌 메마른 진흙이기 때문에 물만 대면 훌륭한 농토가 된다。무엇보다도 이 지역에서는 기름이 나오고있다。특히 수에즈灣일대에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리비아의 기름지대와 똑같은 지질구조를 갖고 있다한다。그래서 84년까지엔 지금 하루 65만배럴의 기름생산량을 1백만배럴로 올려보겠다는 이집트의 야심은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고있다。▼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를 이집트에 반환함으로써 무바라크정부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됐다。팔레스타인 난민의 자치라는 근본문제가 남아있긴하지만 이집트는 좀더 여유를 갖고 이스라엘이나 아랍권의 강경파와 흥정할수 있게 됐다고 할수있다。경제적으로 미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랍권의 돈줄 사우디아라비아의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사장 코리아헤럴드주필 중앙일보논설위원 고려대총장 ▲金敎洙 大총장 ▲李洪九 서울대교수 ▲徐洸善 前梨大교수 ▲朴榮基 西江大교수 ▲安世熙 延世大총장 ▲鄭漢株 勞總위원장 ▲韓彰璂 한국브리태니커사장 ▲金桂吉 ▲金永熙 ▲金相浹 成均館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구독신청
533-2361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YOUNG SOOK '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 대매출 —
산수이전축, 스테레오
Sansui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戰爭과 平和… 週初의 地球村

協商노린「武力시위」

英、사우드조지아島 상륙의 속셈

【워싱턴26日·黃淳煥특파원】 영국군은 25일 포클랜드섬에서 1천2백80㎞ 떨어진 사우드조지아섬을 재탈환했다. 지난4월3일 아르헨티나군에 빼앗긴지 3주만에 영국군은 별다른 저항없이 이 섬을 점거했다. 영국은 약 50명의 아르헨티나군대가 지키고 있었던 사우드조지아를 헬리콥터와 잠수함에 의한 군대투입으로 재점거하고 불법침범에대한 自救행위라고 주장했다.

영국은 이군사행동으로 아르헨티나와 전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포클랜드분쟁의 협상문호가 닫혀진 것이 아니라는 태도이다.

사우드조지아에는 활주로가 없어 군사전략적 가치는별로없는곳으로평가된다.

사우드조지아에 영국기를 다시 꽂은것은 영국이 우선 영해를 되찾았다는 심리적 의미가 크다.

군사작전의 제1보라기 보다는 포클랜드분쟁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군사심리적 압력의 증대로 풀이할 수있다.

영국은 아르헨티나군사정부의 반응을 재어 보며 기다릴 것이다.

지난주말 필영국외상이 워싱턴을 다녀간후 헤이그미국무장관은 2~3일내에 영국이 무력사용을 서슴없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영국은 강경자세를 보여 온 아르헨티나군사지도자들에게 「실력」을 보여주는것이 협상에 이르는 지름길로 한다는 것같다.

미국과 상의한 데서 나온 전략인 것같다.

아르헨티나군사정부는 2~3척의 영국함정이 사우드조지아로 접근한것을 소련정보를 통해 알고 있었으나 재탈환작전은 시기면에서 의외로 받아들여진 것같다.

사우드조지아근해에 파고가 높은등 기후여건이 좋지않고 또 26일부터 워싱턴에서 미주기구(OAS) 외상특별회의가 열리게되어있어 그이전에는 군사행동이 없을것으로 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

멘데스 아르헨티나 외상은 영국군의 사우드조지아에대한 군사행동으로 협상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으나 협상재개 가능성이 사라진것은 아니라고 2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멘데스외상은 25일 헤이그미국무장관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그회담은 멘데스외상의 요구로 취소되었다.

하지만 멘데스외상은 헤이그장관과 전화로 통화했으며 26일 아침(한국시간 27일새벽)다시 사태를 전화로 토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영국군의 사우드조지아탈환으로인한 새사태 진전으로 아르헨티나정부의 새협상방침을 멘데스외상이 기다리는것으로 풀이할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사우드조지아 탈환을 영국이 발표한 수시간후에도 아르헨티나 보도기관에 통제를 가하여 그뉴스를 보도치 못하게한것은 아르헨티나 군사정부의 對국민관계에 취약점이 많다는것을 드러낸것이 된다.

아르헨티나 군사정부는 군참모본부가승인한 뉴스만 보도케하고 외국방송들이 아르헨티나에 선전적 심리전을펴고있다고 국민들에게 주장하여 외국보도를 불신케했다.

미국의회지도자들도 25일 아르헨티나정부에 일종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유력한 보수파의 헨리·잭슨상원의원과 타워 상원군사위원장은 각각 美TV회견에 나와 양국간의 협상이 깨어지면 미국은 영국편에 서지 않을수없다고 말했다.

두상원의원은 미국이 직접 군사행동에 가담하지는 않을것이나 영국에 정보뿐아니라 보급지원도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한TV시사해설자는 협상이 깨어지고 전쟁상태에 들어가면 영국이 아르헨티나에 군사적으로 패하는 것은 미국이 지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한군사전문가는미국이 영국함대의 對아르헨티나 잠수함작전에 기술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헤이그의 협상여행을 수행한 미국관리들은 아르헨티나 군사지도자들이 「자객의 집단」처럼 융통성이 없으며 협상에 완강한 자세를 보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아르헨티나군사정부가 협상에 응하게 하는데 모종의 군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미국은 본것같다.

영국함대가 포클랜드섬으로 완전히 도착하는 2~3일후까지 아르헨티나가 지금까지의 완강한 협상자세에 변화를 보이지않으면 영국은 아르헨티나본토에대한 해안봉쇄와 본토와 포클랜드섬에 대한 공중및 해상봉쇄를 펴거나 쌍방간에 사상자를 많이낼 포클랜드섬재탈환결전을 감행해야하는 양자택일에 직면하게 된다.

영국은 아르헨티나정부와 국민간의 관계를 살피면서 당분간 봉쇄작전을 계속하면서 외교압력을 증대할것으로 보여진다.

전면開戰 不願

아르헨 強硬자세에 압력

美여론도 英쪽에 기울어

◇존·노트英國국방상㊧이 25일밤 英國수상관저밖에서 마거리트·대처수상㊥이 참석한 가운데 英國軍이 사우드조지아섬을 탈환했음을 알리는 성명을 발표하고있다. 【런던26日AP電送=聯合】

◇英·아르헨戰力

	영국	아르헨티나
육군	176,250명	130,000명
해군	74,700명	36,000명
공군	92,700명	19,500명
항공모함	2척	1척
순양함	0	1척
잠수함	28척	4척
구축함	14척	9척
프리게트함	46척	3척
공격함	2척	0
작전기(해군보유)	200대	17대
작전기(공군보유)	700대	223대
탱크	1171대	305대

上陸수훈 SBS의正體

혹독한訓鍊「조각배特攻隊」별명

낙하산없이 수천m상공서 해상침투

2次大戰땐 獨逸軍艦킬러 전통 세워

【런던26日AP聯合=聯合】 영국헬리콥터의 사우드 조지아島공격에앞서 영국군 비밀부대중하나인 12명의 정예보트분대가 핵잠수함을 떠나야음을틈타 이섬에 상륙했다.

소식통들은 이 특공대가 수일전 1천5백m상공의 수송기에서 대서양으로 낙하, 잠수함에 집결하는 훈련을했다고 말했다.

이 위험한 낙하작전은 극비로 대처영국수상과 최고급장관및 장성 몇명만이 알고 있었다고 이 소식통들은밝혔다.

소식통들은 박격포와 수초내에 암호전문을 보낼수 있는 소형 고속무선송신기로중무장한 이 특공대가 25일의 그루트비켄공격 이틀전에 고무보트를타고 잠수함으로부터 육상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 특공대의 임무는 그루트비켄을 방어하는 아르헨티나 해병의 수를 확인하고 주공격때 측면공격을 맡는 것이었다.

사우드 조지아의 아르헨티나군 병력수는 적어도 1백40명이 되는것으로 보도되었었는데 특공대들은 박격포부대의 지원을받는 44명만이 사우드 조지아島에 주둔하고 있다고 송신했다.

SBS특공대는 北아일랜드에서 에이레공화군(IRA)게릴라들에 대항하여 첩보전쟁을 벌이고있는 영국육군소속의 「공수특공대(SAS)」에 해당하는 해군소속의 비밀부대.

철저한 비밀장막에 가려졌던 SBS의 정체는 이부대원들이 지난80년5월 런던주재 이란대사관 인질사건을해결하면서 일부나마 드러나기도 했다.

복면에 검은복장을한 SAS특공대는 대사관을 점거중인 6명의 아랍테러리스트중 5명을 사살하고 인질 19명 전원을 무사히구출해 명성을 떨쳤다.

SBS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게 없다. 2차대전중에 독일이 점령한 유럽지역에서 독일군에대하여 파괴업을 주동하고 정보전을 수행하기위해서 창설되었다는 사실정도만이 알려져있다.

SBS의 활약상중 가장유명한것은 12명의 SBS특공대가 43년에 스키모인이 타는 카이액커누를 타고서 보르도항에 정박중인 독일군함에 가한 기습공격이다.

SBS특공대는 여러척의 독일군함을 침몰시키고 보르도항에 흡착기뢰를 부설하여 독일해군에 결정적타격을 주었다.

SBS는 이와 비슷한작전에 여러번 성공함으로써「조각배특공대」라는 별명을 얻었다.

SBS특공대의 최근 임무는 北海유전의 시추선에대한 테러방지작전과 영국주변바다에 은밀히 설치돼 있는 잠수함탐지망을 보호하는 것이다.

SBS는 잉글랜드 남부해안의 풀레에 위치한 영국해군의 수륙양용훈련단에 본부를 두고있다.

SBS 대원은 2백~3백명정도로 모두 혹독한 훈련을 받은 해병이다. 지원병들이지만 선발규정이 매우까다로와 지원자 50명중 겨우 1명씩만이 뽑히고 있다.

SBS대원은 모두 특수사수이며 수영, 카누젓기, 낙하산침투, 지뢰설치, 백병전, 첩보전및 살인기술의 전문가들이다.

그들의 훈련과정의 으뜸에는 항로낙하산기술이 들어있다. 이것은 3천7백50m 상공에서 상륙용 고무보트등 완전무장을 갖추고 밤중에 낙하산없이 바다에 떨어진후 공격하는 기술.

SBS의 모토는『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술책에의해』라는것.

또 SBS의 상징은 십자로 포갠 커누의 노와 개구리이다.

SBS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는 육군특공대(SAS)에서도 쓰이는 속사회켈러소총이나 코호자동소총, M16소총등.

SBS는 보통 2명이 한팀을 이루어 작전을 수행하는데 사우드 조지아島 점령같은 작전에는 4~6명씩이 한조가 되었다.

시나이 返還하던 날

歡呼와 눈물 喜悲 엇갈려

이집트人「알라 아크바르」외치며 熱狂

이스라엘軍人들은 國旗 내리며 목메어

이스라엘이 14년10개월동안의 점령끝에 이집트에 시나이반도를 완전 반환한 역사적인 날 많은 이집트人들은『알라 아크바르』(神은 위대하다)『이집트여 영원하라』등의 구호를 외쳐대면서 영토수복의 기쁨을 만끽했으며 마지막철수작업을 끝내고 점령지를 떠난 이스라엘군인들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는등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북부시나이국경의 라파와 남부항구도시인 샤름 엘 셰이크에서 동시에 거행된 이집트국기게양식은 많은 이집트주민들이 운집한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라파에서 거행된 국기게양식은 이집트라디오방송에 의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알라神의 말씀이 담긴 회교경전 코란을 낭독하면서 시작됐다.

이집트의 北시나이 총독인 유세프·사브리·아부·탈레브트는 국기게양식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아랍人들은『평화당한 영토의 회복을 기뻐해야 한다』면서『오늘의 영토해방은 故안와르·사다트 대통령이 추구한 和·戰양면정책의 결과』라고 말했다.

탈레브는 카이로로 부터 릴레이式으로 가져온「평화의 횃불」이 피어오르는가운데 군악대가 연주하는國歌에 맞춰 이집트국기를게양했다.

◇…라파에서는 이날 중심가를 가로질러 국경선을 가리키는 철책이 세워지는 순간 팔레스타인人들이 라파가 국경선 확정으로양쪽으로 갈라지는데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스라엘군인들에게 돌을 던졌으며 이스라엘군은 이들을 해산시키기위해 최루탄을 발사하고 공포를 쏘았다.

◇…샤름엘세이크의 중앙광장에서 거행된 이집트국기게양식에도 많은 이집트人들이 참석,『평화의 횃불』을 들고온 20여명의 이집트군인들에게 우뢰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샤름엘 셰이크에서의국기게양식을 주관한 이지역지사 푸아르·아지즈·갈리장군은 축사에서『오늘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이룩한 구체적인평화는팔레스타인문제해결을통한완전한평화를향한제일보라고말했다

◇…샤름 엘 셰이크인근의 오피라기지에서는 약1백여명의 이스라엘군인들이 이스라엘국기하강식을 가졌다.

◇…라파에서는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를 공식반환한지 90분이지났을때 주민들이『시오니즘을 타도하라』라는 反이스라엘구호를 외쳐대기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헬리콥터1대가 라파상공을 비행하면서 조종사가 이집트인들에게 손을 흔들자 이집트인들도 웃으면서 호의를 표시했다.

◇…본국의 이집트人들은 故사다트 대통령이 시나이수복을 가능하게 했음을 상기하면서 그가 시나이반환일을 보지못하고 눈을 감은것을 못내 안타까와했다.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과 각료들은 이날 하오6시 (한국시간)사다트前 대통령의 묘소에도착、군악대가 「순교자의음악」을 연주하는가운데 그의 묘에 헌화했으며 이에앞서 무명용사들의 묘에헌화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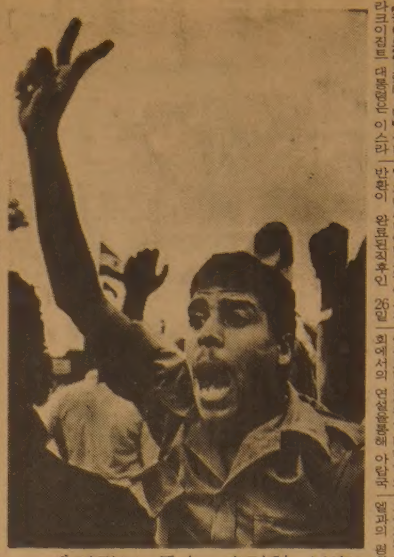
◇…메나헴·베긴 이스라엘首相은 이날 사다트대통령의 미망인 지한·사다토여사에게 보낸 전문에서『사다트 대통령은 항상 우리곁에있어 자신의 평화및 화해실현노력이 가져온 위대한 영광을 지켜볼것』이라고 위로했다.

이스라엘의 행정수도 텔아비브에서는 이스라엘人과 이집트人들이 사이좋게 최초로 양국이 공동으로제작한 TV프로그램을 시청했다.【카이로·샤름엘세이크(시나이)·라파(가자地區)25日AP·UPI=聯合】

對아랍 관계改善 신중히

무바라크會見 이스라엘과의 平和가 더중요

베긴首相 "다정한 이웃되자" 호소



◇이집트 兵士 승리의 V字
한 이집트 병사가 25일오후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시나이반도남부의 샤름엘셰이크에 이집트 국기가 게양되자 손으로 V자를 만들어 보이면서 환성을 지르고있다. 【샤름엘셰이크(시나이반도) 25日AP電送=聯合】

【카이로26日聯合=聯合】무바라크이집트 대통령은 이스라엘 점령시나이반도의 역사적 반환이 완료된직후인 26일 이집트대외정책을 밝히는 의회에서의 연설을통해 아랍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이스라엘과의 평화만큼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것임을천명했다.

지난4년간 아랍국가와의 소원한 관계를청산하고 아랍진영으로 복귀하라는 강한 압력을 받고있는가운데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날『우리는 어떤 아랍국가와도 관계를 재개할 용의를갖고있으나 이스라엘과의 관계만큼 가치는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텔아비브26日AP聯合=聯合】메나헴·베긴이스라엘 수상은25일 미리 녹화된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과의 동시 TV회견에서 이스라엘인과 이집트인들에게「다정한 이웃」이 되자고 호소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양국에서26일 동시에방영된 이TV방송을 통해 베긴이스라엘수상은 두나라는 평화속에 공존해야할 뿐아니라 다정한 이웃으로서 우애속에 공존해야한다고 말했다.

베긴수상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양국은 경제및 사회문화등 각분야에 걸쳐 상부상조 할수있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과 시나이반도 철수는 故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4년반전 예루살렘을 방문함으로써 시작된 양국간의 평화과정에 또하나의 이정표를 마련한것이라고 지적했다.

印尼與野지지자충돌

總選운동과열 軍發砲

7명사망 80명負傷

【자카르타25日AP UPI=聯合】 오는 5월4일 총선거를 실시하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자카르타에서 25일 집권 골카르黨(직능그룹) 지지자들과 야당인 回敎系 開發統一黨(PPP) 지지자들간에 충돌이 벌어지자 인도네시아軍이 이에 발포, 7명이 사망하고 적어도 80명이 부상했다. 약60만명의 골카르黨 지지자들은 총선거를 9일 앞둔 이날軍장갑차가 삼엄한경비를 하는가운데 자카르타시내에서 선거운동 퍼레이드를 벌이다 자카르타 중심지역과 서부지역에서 PPP 지지자들과 충돌을 벌였다.

목격자들은 퍼레이드 대열이 인도네시아大學을 지날무렵 돌연 골카르黨 지지자들과 PPP지지자들간에 고함이 일면서 투석전을 벌였으며 이에 軍장갑차가 발포하기시작했다고 전했는데 사망자들이 모두 PPP지지자들인지의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美術전시장 大火災

伊서 45명死亡추정

【로마=聯合】이탈리아 중부 토디의 한미술전람회장에서 25일 대화재가 발생, 최소한 34명이 사망했다고 이탈리아 경찰이 발표했다.

경찰은 화재가 가스누출로 인해 발생한것 같다고 전하고 이번사고로 어쩌면 45명가량이 사망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日刊紙 총파업

회교右翼 과격學生 습격사건 抗議

【라호르(파키스탄)25日UPI=聯合】 全파키스탄 신문연합(APNS)소속의 모든 파키스탄일간신문사들은 지난주 편잡지방 라호르市에서있었던 회교우익과격파 학생들의 2개일간신문사 습격사건과 관련,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여 이날 석간과 26일 조간신문발행을 중단했다.

海外토픽

夕刊紙 朝刊의 4倍

★美新聞協 신문관계發表

미국에는 석간신문이 조간신문보다 4배나 많으며 간지들의 74%이상이 발행부수 5만부이하라고 美신문발행인협회가 24일 밝혔다.

다음은 이 협회가 밝힌 미국신문에 관한 몇가지 조사내용이다.

▲美근로여성의 72%는 매일 신문을 읽는다.

▲1천5백60개 市에서 일간지가 발행되며 그중 1백72개 도시에서는 2개이상의 신문이 발행된다.

▲1980년현재 美조간지들의 평균 지면은 72페이지, 석간은 60페이지, 일요판은 2백8페이지를발행.

▲연간 2백50여만톤의 신문종이가 재생된다.

▲전체 43만2천여명의 신문사종사자들 가운데 39%인 17만명이 제작부문관계자들이다. 【워싱턴=UPI】

메아리

서울사람들이 다니는길은 거의 모두 보도블록의 포장도로다. 더러면 발바닥이 좀 딱딱한 느낌은 들지만 그런대로 노면이 산뜻하여 발걸음마다 멋을 느끼는경우가 없지는 않다. 『서인지 국내만하더라도 이제 보도블록이 웬만한 도시마다 다 깔려가는 중이다.

엊그제 보도를 보면 서울시는 이미 낡은 보도블록들을 바꾸기로하고 어린이대공원 주변에서 시험포장을 실시, 알맞는것을 선정하리라고 한다. 어떤것이 선택될지는 두고 봐야하겠지만 7개생산업체들이 그 시험포장에 참여, 제각기재질·공법등을 겨루리라는만큼 지금 깐 것들보다는 나아지리라는 기대가 앞선다.

시민들의 입장으로선 우선 걸어서 편안하고 안전하면서도 미관이 뛰어난것이었으면 하는게 공통적인 바람일것이다. 울통불통하거나 뒤뚝거리는게 우선 없어야한다. 툭하면 갈라지고 한귀퉁이가 떨어져나가는것은 깔지않는게 오히려 낫다. 조금만하면 미끄러져 낙상하기쉬운것도 금물이다.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지체부자유아들도 걷는 길임을 생각할때, 지금 있는것 중에도 위험스런게 없지는 않다.

보도블록

그러고보면 아예 이번기회에 이런 행인들, 특히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배려가 깊이 보태졌으면한다. 예컨대 지체부자유자들의 휠체어가 손쉽게 오르내릴수 있도록 보도 턱의 일부를 낮게한곳을 많이 넓히도록하는 일들이다. 또 보호색같은것을 써서 그들이 일찍 알아볼수있을게 분간할수 있게하는것도 한 방법이다.

이번 보도블록 교체에도 명동이나 86년아시아경기와 88올림픽이 처들렸다. 요즘은 그저 걸핏하면 내세워지는 대목이다. 물론 하기는 해야할 일이다. 하지만 88년까지는 아직 6년이나 남았다. 따라서 그리 서둘러야 할 계제는 아닐듯하고 날이가면 갈수록 보도블록도 더 새롭고 편하며 멋진것이 생산돼나올수 있지 않을까. 바꿔 말하면 일의 우선순위로 보아 생각해볼점이 없지 않을듯 하다.

더구나 걷어낸 블록은 일부 신흥주택가의 뒷골목 포장용으로 쓸 예정인 모양이니 행정의 우선순위가 눈에 뜨이는 한길에만 있고지역사회에서 아침저녁으로 요긴한 골목은 뒷전이라는 감각에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

美軍의 한국혼혈아 美移民할때 우선권

【워싱턴26日=聯合】미국과한국여인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들에게 미국이민에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26일 美상원군사위에서 발의됐다.

山火警防 경계령

忠南 취약지配置

【大田】충남도는 최근 기상의 전조현상으로 산불이 잦은데 대처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5월15일까지 도내사찰과 관광지등 화재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산화경방특별경계령을 시달했다.

이에따라 각시·군에 산화경방대책본부를 설치, 비상근무하는 한편 특별감시반을취약지구에 고정배치하여 발화요인이 되는 일체의 부주의행위를 사전 단속할 방침이다.【聯合】

성산교회

바자회의 초대

귀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본 성산교회 여전도회에서는 금번 새롭게 마련한 성전입당 예배를 앞두고 뜻깊은 어머니주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을 초대하오니 가족 친지 동반하시어 쇼핑도 하실겸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알뜰메뉴 : 곰탕, 떡만두, 냉면, 인절미, 시루떡
빈대떡, 에그롤, 각종짱아치및 김치종류, 오징어젓, 게장, 된장, 고추장, 막장, 각종꽃과 과일및 의류, 여러가지 조미료도 있읍니다.

일 시 : 1982년 5월8일(토)
시 간 : 아침 10시반~오후 5시
장 소 : 1239 JANE ST.
(Weston & Jane 코너)

성산교회여전도회
회원일동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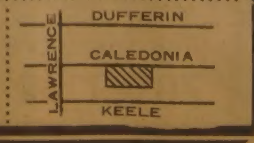
Apr. 19 - May 3

Tootsie Taffy	24x30c	$ 4.79
Pop eye and Big League Chewing Gum	12x59c	$ 4.59
Fun dip 48x15c		$ 4.70
Hershey Big Block Choco Bar	36x55c	$12.25
Allen 101 Kiddy Pop	2/5c	$ 1.19
Wilson Pop 24x10oz.		$ 5.39
FBI Pure Apple Juice 24x15oz.		$ 7.99
Fiesta Fruit Jellies 300g		$ 1.56
Y & S red & Black twizzler	70x5c	$ 1.85

Victoria day에 필요한 Fire Worker를 다량입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40% Off, Cash & Carry는 Additional 7% Off)으로 봉사해 드립니다

May16(일)8:00a.m.-2p.m. May22(토)8:00a.m.-1p.m.
May23(일)8:00a.m.-2p.m. May(Victoria day)8:00a.m.-3p.m.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고층 아파트먼트 빌딩들
①12층, 89Unit, 100대의 주차장을 가진 10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2,400,000

②15층, 104Unit, 129대 파킹시설, 3에이커, 실내수영장, 11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3,4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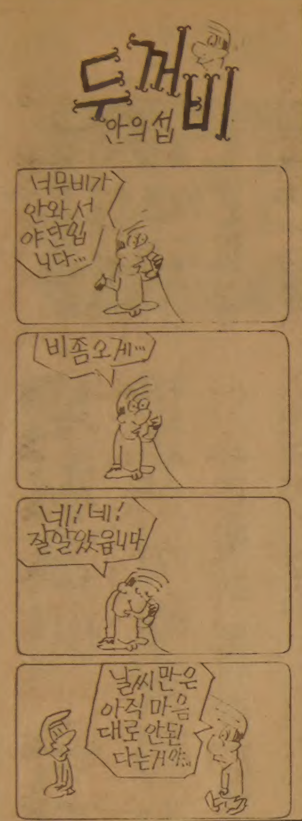
③12층, 241Unit, 오타와에 소재
가격 : $5,780,000

이외에 여러종류의 사업체
(버라이어티, 식당, 도넛샾, 기프트샾등)

※메트로 토론토 전역을 카바하는 가옥매매에 대해 문의바랍니다.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두꺼비 안의섭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빛본"死境의 大邱사과 살리기作戰"

홍옥으로 「브랜디」 만들었다

"한국版 갈바토스·애플재크" 참나무통속서 2년간 發酵

능금業者들 "살길 찾았다" 싱글벙글

◇품종개량과 재배단지의 전국확산으로 빛을 잃어가고있는 경북지방의 재래종 사과, 경북 능금조합은 이같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大邱사과를 원료로하는 국제수준급 사과브랜디를 개발했다.

【大邱=이동국자부申鉉廷】 사과의 명산지 大邱에서 국제수준급의 사과 브랜디가 개발됐다. 경북능금조합은 날로 빛을 잃어가고있는 「大邱사과」의 명성을 되찾고 사과산업을 부활시키기위한 방법으로 브랜디제조법을 개발, 26일 국세청에 제조허가를 신청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용역의 도움을 받아 개발된 이 사과브랜디는 주도(酒度)가 43%인데 홍옥1상자로 1천5백㎖짜리 고급품 2병정도를 생산할수 있다는것. 관계자들은 사과브랜디는 참나무통속에 2년이상 보관, 발효시키면 「고운 색깔과 향기가 생겨 프랑스의 「갈바토스」나 미국의 「애플재크」등 국제수준급 사과주를 생산할수있다고 주장, 88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을 상징할수있는 식품의 하나로 개발하자고 건의하고있다.

경북의 능금업계가 이같은 구상을 하게된것은 大邱사과가 濟州감귤과 충북·강원도 등 중부지방의 신품종 사과에 밀려 재배면적마저 줄어들고 있기때문.

경북능금조합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경북도내의 사과 재배면적은 2만3천2백70ha로 1년전에 비해 3백ha가량이 줄었다.

전국의 사과밭이 2만ha에 불과하던 70년대초만해도 이지역 사과재배면적이 1만5천ha로 면적에서 4분의3을 차지했었고 상품화되는 사과의전량을 경북지역이 공급해왔었다.

그러던것이 70년대중반이후 사과의왜소화, 濟州를 제외한 전국으로의 사과밭확산등으로현재 경북능금의 비중은 재배면적에서 50%, 생산량에서 60%를 유지하고있다.

게다가 국민식생활 습성의 변화로 대도시 과일시장에서는 껍질이 얇고 속살이 연한 「후지」「쓰가루」「모리스·데리셔스」등 신품종 사과가 소비자의 애호를 받는 반면 재래종인 국광, 홍옥등은 외면을 받기시작한것.

경북지방 사과나무의 절반이상이 재래종인 반면 사과재배의 붐이 일고 있는 충남 禮山·牙山, 충북 忠州·堤川, 강원 原州·江陵·鐵原, 경기 利川, 경남 居昌등지에서는 신품종을 집중생산, 영농가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더구나 고목인 재래종의 경우 농약값등 영농비가 더많이 드는 반면 사과값은 신품종의 3분의1에도 못미치고 있다.

경북漆谷에서 5천평의 사과밭에 3백50그루를 가꾸고 있는 河相基씨(62)는 2백그루의 수령50년이상된국광·홍옥등 품종이 농약값도 나오지않자 작년가을에 1백그루를 베어냈고 올해안에 나머지를 모두 뽑아버리겠다」고 말할 정도.

대부분의 경북지방농가들이 신품종대체를 뒤늦게하고 있기때문에 재래종사과는 팔길이 없고 신품종은 아직어려 경제수령에 미치지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과값은 세계최고수준이어서 수출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경북능금이 살아갈길은 자력으로 품종을개선해나가면서 품종개량이 정착될때까지 생산되는 재래종 사과들을 주스나 과즙, 사과주의 원료로 파는길밖에없다.

그러나 조합관계자들은 참나무 통속에서 2년이상의 숙성을 거쳐야 좋은술을 만들수있기때문에 자금회임률이 높아 충분한 재력이 뒷받침돼야된다는점을 강조한다.

또 조합관계자는 현재60ha 이상 농가에한해 허가해주는 과실주 허가조건의완화와 과일을 원료로한 주류제조에 부가되는 주세의 감면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密輸대금 히로뽕으로 갚아

새숫법 特攻隊적발

日상품 數億원臺 海上거래

【釜山】부산지검특수부는26일 남해안공해상에서 일본어선을 가장, 밀수특공선이 싣고온 수억원어치의 밀수품을 야간을이용 해옮겨받고 히로뽕으로 그대금을 결제한 신종대규모 국제해상밀수조직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날 이밀수조직의 국내조직책인金壽根씨(32·釜山市中區寶水洞2가4)와 해상운반책 張채길씨(33·慶南三千浦市馬島洞17의33)육상운반책 張琪星씨(37·釜山市西區富民洞1가4)·釜山판매책 方甲順씨(45·여·釜山市中區富平洞1가4)서울판매책 孫春子씨(38·여·京畿道松炭市左洞784)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일본인총책인 히라누마(平沼)씨(40·일명 尹사장)의 검거를 일본경찰에 의뢰하는한편 또다른 釜山판매책 康모씨(40·별명 영주康씨)등 3명을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일제전기면도기 1천8백개등 시가3천5백만원어치의 밀수품과 히로뽕완제품 9㎏및 한국측 밀수특공선 남성호(4·6톤) 1척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중순 자정께 전남 소리도 남방16마일 공해상에서 해상운반책인 張씨흥자서 자기소유의 밀수특공선인 남성호를 타고가 일본총책히라누마씨가 어선을 가장해보낸 특공선에 접근, 일제 산요면도기2천개등 3천6백만원어치를 옮겨받아 경남三千浦시로 양륙, 육상운반책인 張씨가 운전하는 봉고차편으로 서울·부산등지로옮겨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또한 지난1월초에도 같은 숫법으로 소니 카세트2백개등 5천1백만원어치의 밀수품을, 4월17일새벽 4시께는 소니면도기 4천8백40개등 1억2천만원어치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2억1천여만원어치의 일제밀수품을 옮겨받아 국내에 양륙했으며 그대금으로 히로뽕 11㎏을 넘겨주기로 약속, 3번째공해상에서 만난 지난17일에 이중2㎏을 해상운반책인 張씨가 넘겨준 혐의이다.

이들 국제조직은 밀수품값을 일본구입가격으로 하고그대금으로 넘겨주는 히로뽕값을 ㎏당 한화5백만원씩으로 대금결재하도록했다. 【鮮】

個人택시 추첨制 폐지

장기 無事故운전사에 優先權줘 자동配定

개인택시면허가 현행추첨제에서 장기무사고운전사 순으로 자동배정되며 전천택시업체는 적극육성하는한편 부실업체는 점차적으로 자연도태시킨다.

교통부는 26일 이같은내용을 골자로한 「택시종합개선방안을 확정, 각시도에 시달했다.

개선방안에 의하면 82년중 전국적으로 8천7백63대의 택시를 증차하되 이중 70%는 상반기에 개인택시로 증차하고 나머지 30%는 하반기에 우수택시업체로 지정된 택시회사에 증차, 86년까지는 개인택시 비율을 50%로 높이기로했다.

개선방안은 또 종전영업용 3년 자가용3년의 무사고기록을 가진 유자격자의 신청을 일괄접수, 추첨에 의해 개인택시면허를 내주던것을 앞으로는 장기무사고 운전사순으로 서열을 정해 우선권을 부여, 무추첨배정하기로 했다. 이면허자격차등제는▲영업용택시운전경력▲우수업체및 동일회사 무사고장기근속자에 우선권을주되 동일순서내에서 경합할때는 장기무사고순으로 면허해주기로 했다.

또 교통부는 개인택시면허가 이권화되는것을 막기위해 양도 양수제한을 현행면허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고 일단 면허를 양도한자에겐 개인면허 재발급과 양수를못하도록 못박았다. 또 개인택시의 양도양수에따른 피해자를 줄이기위해 본인이 희망할경우 개인면허반납제를 신설하되 추후 원할때는 우선재발급을 해주도록 조치했다.

교통부는 또 서울등 대도시에 개인면허유자격자가 집중되어있는 점을 감안, 6대도시거주 유자격자가 지방연고지에서 개인면허를 쉽게발급받을수있게 면허조건중 「해당지역 1년거주」조건을 1개월로 단축시켰다.

또 교통부는 택시운전사월급제실시를 위해 현행급여구조와 수입금 노사간의 협의로 책정되 월급제실시를 우수업체요건으로 하기로 했다. 또우수업체로 지정된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현행부제운행을 철폐, 전일운행등 편의를 봐주기로했다.

이번 증차되는 택시8천7백63대는 작년의 증차분3천4백8대보다 배이상늘어난것인데 각시도별 증차대수는 다음과같다.

▲서울 1천4백62 ▲부산 1천2백36대 ▲대구 4백71대 ▲인천 7백88대 ▲경기 1천7백6대 ▲강원 3백53대 ▲충북 2백36대 ▲충남 2백97대 ▲전북 1백81대 ▲전남 5백67대 ▲경북 5백83대 ▲경남 8백12대 ▲제주 71대

仁川市廳에 "뇌물"波動

幹部등 7명立件·41명 名單통보

住宅자금 배정등不正협의 業者 3명도

치안본부는 26일 국민주택 분양을 둘러싸고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仁川市 주택과장 金正基씨(53)등 건설행정관계공무원 7명과 이들에게 돈을준 3명의 업자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이사건과 관련, 경미한비위가 드러난 仁川市와 산하구청직원등 41명의 명단을무더기로 仁川市에 통보했다.

입건된 공무원들은 仁川市가 지난79년부터 81년사이국민주택을 분양해오는 과정에서 주택건설업자들에대한 사업승인·준공검사·자금배정등을 둘러싸고 돈을 받아왔다는 것인데 주택과장 金씨는 6회에 걸쳐 1백30만원을 받은것으로 밝혀졌으며 비위사실이 통보된 41명의 공무원은 대부분 지난79년이전에 돈을 받은것인데 수회액수도 3~5만원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류탄脫營兵 검거

慶山서, 「기관총 탈영下士」도

무장탈영병2명이 아무사고없이 모두 붙잡혔다.

지난23일 수류탄2개를 갖고 탈영, 서울에 잠입했던육군 모부대소속 유병호이병(22)이 탈영4일만인 25일하오2시5분께 경북慶山郡珍良面內里 文川池앞 대구시내버스종점에서 大邱로 들어가는 35번버스를 타고 있다가 慶山경찰서정보과 韓相洛순경(28)등 6명의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붙잡혔다.

유이병은 어머니가 보고싶어 부대를 탈영했으며 가진돈이 없었기때문에 협박해서 차를 공짜로타려고 수류탄을 가지고 나왔을뿐 사람을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이날 하오 6시20분께 육군 모부대소속 이종길하사(23)도 무장탈영 5시간15분만에 서울 永登浦역앞에서 군수사기관에 검거됐다. 李하사는 이날낮1시께 부대에서 술을마시고 기관총1정과 실탄1백20발을 휴대한채 군복차림으로탈영했었다.

老人 푸대접한 운전사에 罰金

【永川】경북永川경찰서는26일 노인들에게 승차를거부한 동신여객소속 경북5아9901호 시외버스 운전사 이상목씨(34)에게 벌금 2만원과 1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鮮】

鄭一亨박사 葬禮式 오늘 社會葬으로

故鄭一亨박사의 장례식이 27일 상오10시 국립극장에서 社會葬으로 거행된다.

정부는 故鄭박사의 유해를 국립묘지 애국지사墓域에 安葬키로 했으며 장례위원회명예위원장에 白樂濬박사, 장례위원장은 丁來赫국회의장, 부위원장 李鍾贊民正, 林鍾基民韓, 李東鎭국민당총무, 집행위원장은 鄭憲柱씨로결정했다.

◇車는 불타는데 구경만…

주인이 잠시 자리를비운사이 포니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주차장에는 30여대의관광버스, 택시, 자가용들이 있었지만 누구하나 소화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고 옆차량을 치우는 것으로 끝났다. 차량마다 소화기는 비치하고 있으면서도 이럴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못하는것일까.

【18일하오3시께 경남 通度寺입구 주차장에서=서울 東大門區 淸凉里洞 山1 이홍배씨 찍음】

싹 안튼볍씨 「曙光」 種子값만 환불

3천農家 "못자리費用도 보상하라"

【大田】싹이 안터 말썽을 빚었던 曙光및 한강찰벼볍씨의 침종농가에 대한 환불을 둘러싸고 농민들은 종자대이외에 못자리 재설치비용도 보상을 해줘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忠南道는 국립종자보급소로부터 다수확품종인 서광및 한강찰벼 볍씨를 공급받아 농가에 배정한뒤 싹이 제대로 안되자 이 볍씨를 현금으로 구입했던 唐津·瑞山·保寧등지를 중심으로한 도내 3천3백여농가에 종자대금조로 종자4·5㎏당 2천5백71원씩 환불해주고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다시 못자리를 설치하기위해서는 종자대이외에 본답 10a당 ▲황대 3천60원 ▲비닐 2천4백60원 ▲비료대 6백84원 ▲농약대 3백원 ▲인건비 5천원등 모두 1만1천54원을 추가로 환불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농민들은 서광및 한강찰벼의 볍씨를 현금및 외상으로 구입, 이미 못자리를 설치했었으므로 다시 못자리를 꾸며야할 9천9백여가구 농민들에게 일정액을 보상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鮮】

屍體10具 모두발굴 地下鐵공사장 붕괴

서울西大門區峴底洞지하철공사장사고대책본부는25일하오4시25분께金光俊씨(21·전남康津郡兵營面中古里48)의 시체를발굴해냈다.

이로써 지난8일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로 실종됐던 10명의 시체를 모두 찾아냈다.

사고대책본부는 실종자시체를 모두 발굴함에따라 복구작업을 본격화, 이달말쯤이면 교통소통이 가능할것이라고 밝혔다.

醫師의 「1分」

서울大 보건대학원장 洪彰義박사

환자의 절박한所望은 "인간적診療"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에 부임한 洪彰義박사(59·사진)는 「의사의 진료시간이 너무 짧다」는 환자들의 공격에 할말이 없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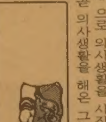
얼마전까지만해도 서울대학병원(3대)으로 재직했기때문에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洪박사의 이 「침묵」은 우리 사회의 진료실태를 그대로 폭로하는 것같아 공감이 가고도 남는다.

인턴이나 레지던트제도가 없었던 지난47년 서울의대 제1회졸업생으로 서울의대 소아과 의국원(醫局員)으로 의사생활을 시작, 35년간 줄곧 의사생활을 해온 그는 「내자신부터 시간에 쫓겨온 의사」라고 서슴지않고 시인했다.

「소아과의 代父」로까지 의학계에서 존경받는 그의 이런 말은 요즘 종합병원에 가보면 얼마든지 수긍이 가고도 남는다.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기전에는 환자1인당 30분에서 1시간이라는 비교적 넉넉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는데 보험실시이후 환자들의 종합병원집중현상과 함께 환자1인당 진료시간은 3분~6분으로까지 줄어든 실정이기때문이다.

물론 날이 갈수록 발달되고 있는 각종 의료기구의 도입과 기술로 더욱 과학적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주장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달랐다. 환자에 대한 진료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외에도 환자를 깊이 이해하려는 인간적인 자세가 갖춰져야만 큰 효과를 볼수 있다고했다.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시간을 환자와 긴밀히 접촉하면서 증세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야한다는 것.

환자들의 가장절박한 소망이 의사들이 더 오래 더 자세히 돌봐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임이 중론인것을 잘안다고 했다.

환자들은 의사가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해줄것을 요구하지만 의사에게는 50대1, 1백대1의 관계로 벌어지기때문에 진료가 기계적인 것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의사들만 나무랄수도 없다.

반평생에걸친 병원생활을 일단끝낸 洪박사가 시간이 부족했었다고 말하는것은 환자를 돌볼때 「1분」만이라도 시간이 더 있었다면 더나은 진료를 할수 있었을것이라는 「후회」를 말해주고 있는것인지도 모른다. 【鄭光鎬기자】

김명종 한약방

힘.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스파다이나 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개업 특별봉사

숙녀복(Ladys Wear) 전문
공장생산가격으로 직매합니다.
→상세한 바느질과 고급제품
월~금 : 10시~6시, 토~일 : 10시~4시30분
BOSCHE CO.
292 Parliament St.(at Dundas)
☎ : 362—2300 MR. 리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 주 내에서 가장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음
192 SPADINA AVE.
☎ : 368—4215, 368—0114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마누라가 몇주일동안 협박을하더니 드디어장모한테로 가버렸다네"

"저런, 거 참 안됐군요"

"일이 더악화될지도모르지"

"마누라가속임수를 쓰는건지도 모르니까"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延長 10회末 「밀어내기」로 결승점

釜山高, 2회전에 턱걸이

培材高에 극적 逆轉勝

世光, 전원安打 휘문高박살

전국 高校야구 光州商, 江陵高에 7회콜드게임勝

고교야구무대에서 잊혀져가던 명문 釜山高가 26일 서울운동장에서 개막된 제16회 대통령배 고교야구대회1회전경기서 연장10회말 밀어내기로 결승1점을 얻어 강적 培材高를 제치고 2회전에 턱걸이했다. 초반 어처구니없는 수비실책으로 선제점을 허락했던 釜山高는 10회말 1死후 좌완 에이스인 7번金宗爽이 좀전 안타를 날려 승기를 포착, 8·9번타자의 연속안타로 이룬 1死만루의 찬스에서 1번 黃允泰가 培材高의 좌완투수 金正文과 끈질긴 씨름끝에 포볼을 얻어내 4-3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다.

한때 金太業을비롯한 고교스타들을 갖고서도 동향의라이벌 光州一高에게패해 준우승에 그쳤던 光州商高는 이날 江陵高와의 개막전에서 1、2회말 집중6안타, 3四死球적실9개로 7득점, 대세를 결정짓고 9-1, 7회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

釜山高는 28일 2회전서浦鐵工高와, 光州商高는 大邱高와 각각 8강진출권을 겨룬다.

불운의 培材高는 10회말釜山의 金宗爽 金憲洙에게 연타를맞은후 9번洪承錫의 보내기번트를 3루수 金重起가 재빨리 잡어올렸으나 1루수 元星鎬역시 번트에대비 베이스를비워 안타를 허용, 만루의 위기를 불렀다.

培材는 1회초 첫공격에서 선두 申容涉이 포볼, 2번宋政動이 釜山투수의 번실로 각각 진루하고 2死후 투수겸 5번金正文의 좌월적시2루타로 홈인, 간단히 2점을 선제했다. 3회초에는 좌월2루타로 나간 申容涉을보내기 번트와 4번盧燦爽의 좌전적시타로 불러들여 1점을 추가했다.

철석같이믿던 좌완 에이스 金宗爽이 적시타를 얻어맞아 의기소침했던 釜山은 5회말 2번柳東洙의 좌전적시타, 6회말 무수2루타로 7번金宗爽의 좌중월 2루타, 8회말 8번 金憲洙의 우전안타로 각각1점씩을 만회, 3-3 동점을 만들었다.

世光高는 4회초에만 연속5안타로 4점을 얻는등 전원안타를 기록하며 徽文高에 13-0으로 5회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

◇첫날 1회전

	1	2	3	4	5	6	7	8	9	10	계
강릉고	0	0	0	0	0	0	1				1
광주상고<7회 콜드게임>	4	4	0	1	0	0	×				9
배재고	2	0	1	0	0	0	0	0	0	0	3
부산고<10회 연장>	0	0	0	0	1	1	0	1	0	1	4
세광고	0	1	5	4	3						13
휘문고<5회콜드게임>	0	0	0	0	0						0

◇승리의 점프 釜山高와 培材高대결연장10회말。연속3안타로 이룬 1死만루의 찬스서 釜山高의 3루주자金宗爽이 밀어내기로홈인, 결승점을 올리고있다。

卓球종목 서울 올림픽채택
사마란치委長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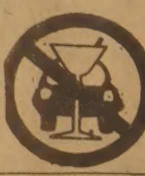
【부다페스트25일AP=聯】한·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25일 오는88년의 서울올림픽때부터 탁구가 정식 올림픽경기종목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마란치위원장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유럽선수권대회와 유럽탁구연맹(ETTU) 총회에 IOC대표자격으로 참석, 국제탁구관계자들에게 『탁구가오는 88년부터 올림픽종목으로 추가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사마란치 위원장은 이날 국제탁구연맹(ITTF) 회장인 로이·에번즈씨에게 공식 올림픽旗를 수여했다.

南·北韓등35國참가 印尼 亞洲卓球대회

【자카르타24日聯合=聯】오는 5월24일부터 6월3일까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제6회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는 아시아탁구연맹(ATTU)43개회원국중 한국·북한·中共등 모두35개국이 참가한다고 알려왔다.



프로야구

◇전기중간순위 <25일현재>

	승	패	율
①삼성	10	5	·667
②OB	9	5	·643
③롯데	7	5	·583
④MBC	7	8	·467
⑤해태	5	8	·385
⑥삼미	3	10	·231

曺薰鉉·徐奉洙 도처서 血戰
挑戰7番棋중 1局·國棋戰결전등

바둑소식

○…숙명의 라이벌인 曺薰鉉名人과 徐奉洙7단이 당분간 도처에서 혈투를 벌일 기세。

曺名人은 지난23일 제16기 王位戰도전자결정전 제2국에서 金在九7단에게 1백81수만에 執黑으로 불계승을거두어 연2승으로 도전권을따냈다。曺名人은 29일 크라운호텔 특별대국장에서 徐奉洙王位와 挑戰7番棋중 제1국을 두게된다。

曺·徐 두기사는 또 5월8일 2대2로 막바지에 와있는 國棋戰의 타이틀을 놓고 결전을 벌인다。

두巨人은 名人戰의 타이틀을 놓고 격돌할 가능성도 크다。

名人戰의경우 曺8단이 타이틀을 쥐고있는데 徐7단은 제13기 名人戰도전자 리그에서 姜勳4단과 동률인 4승1패를 기록하고있다。

徐7단과 姜4단은 5월3일 名人戰도전권을놓고 최종일결전을 벌이게되는데 여기서 徐7단이이기면 徐7단은 曺8단과 단시일에 세가지 타이틀을 놓고 격돌을 벌이게된다。

첫9단 탄생할듯 曺薰鉉8단 유력

○…금년봄에는 우리나라의 첫9단이 탄생할것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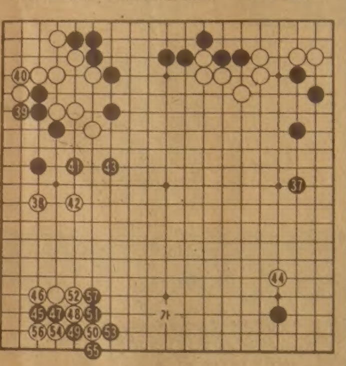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기계의 1인자 曺薰鉉8단은 5월4일부터 시작되는 제55회甲組승단대회에서 5연패를 하지않는이상 入神의 경지에 들어선다。

한국기원昇段규정으로는 8단에서 9단으로 승단하려면 기본국수 33局에 총점 2천4백75점을 얻어야되는데 현재 그는 28局에 2천3백15점을 얻고있어서 5局중 1局만 이기면 승단이 확정된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8局 第3譜 37~57 (각5시간 덤5집반)

白(4段)鄭壽鉉<2勝3敗>
黑(7段)河燦錫<2勝2敗>



요즘 일부팬들로부터 河7단이 2패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바로 얼마전 姜勳4단에게 執黑한 바둑은 중대한 착각으로 역전당한 것이어서 기억이 새롭지만 또한판이 어찌된것인지 궁금하다고 한다。

그바둑은 아니 言及할바 있거니와 실인즉 河7단이 부득의 사정으로 해부전패。두어보지도 못한채 패했던 것이다。지금와서 케케묵은 얘기를 이欄에 적을 필요는 없겠지만 하간 河7단 본인으로서는 부득이한 일이어서 어쩔수없었고 또 팬들의 섭섭한 마음은 곧 바둑을 아껴주는 성의로 좋게 해석 되기때문에 간단히 말해두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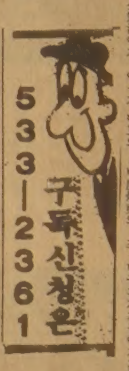
黑37로 우변을 벌렸을때 좌변白38로 육박한것은 이른바 요착이며 집관계가 매우큰 점이다。그러나 白의 좋은 수는 이한점에 불과한데 반하여 黑은 연속안타로 호조를 보이게된다。

黑軍 安全한 設營

黑39를 선수하고 41에 뛴다음 다시 43으로 뛴수는 一見 집차지에 직접관계가 없는 완착인듯이 보인다。그렇지만 실상은 좌변을 白의 공격대상으로 만들지 않자는것이 목적。즉 말해서 안전제일의 두터운 수이며 겸하여 『이정도로 충분한 국세』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鄭4단도 물론 어딘지 모르게 열세가 된줄 알았고 특히 白44는 『차라리 좌하귀에 47로 말뚝을 박아 집차지하는 작전을 세운 다음에 44와 『가』자리를 맞봐야 유리했을것 같다』는 국후의 견해이다。

왜냐면 黑45가 뜻밖의 호착이어서 이하57까지는 필연적이지만 黑이 전체적으로 두터워졌기 때문이다。〔一九〕



나의 이력서
金蘇東 ㉞ (題字 金蘇東)

2·26事件의 銃聲속 法學士證받고

日本大 卒業무렵

숙제로 남아있던 민법각론, 헌법각론, 재정학, 형법각론의 시험을 예정대로 무사히 다마쳤다。오색 꿈이 영롱했던 대학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기말시험에 시달린 피로를 목욕탕에서 풀고 어수선한 셋방에 돌아와 잠이들었다。졸업을하루 앞둔 날이었다。동경에는 드물게 보는 눈이 하얗게 쌓이기 시작한다。졸업을 장식하는 서설인양 상쾌한 기분으로 거리에 나섰다。이날밤 와세다의 이강일군, 법정의 신영욱군, 준암중의 김안과 양용이 나의 셋방에 모여 졸업을 축하하는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고작해야 몇병의 맥주와 찹쌀떡이다。동경생활의 술회를 늘어놓았고, 모두들 동경을 떠날 마음의 준비를 다짐했다。밤늦게 이들이 돌아간뒤 호젓하고 쓸쓸한 적막이 엄습한다。못견디게 괴로운 시간이다。동경생활에서 내가 뭘 했단말인가。또 무엇을 남겼단 말인가。고독하게 걸어온 추억의 몇해를 회상해본다。창밖에는 아직도 흰눈이 펄펄 내리고 있다。

그 이튿날 새벽 동경에는 별안간 총성이 들려왔다。라디오가 요란하게 뉴스를 전한다。그것이 바로 일본의 정변 「2·26사건」이다。동경 시내의 교통이 일제히차단되었다。동경천지는 갑자기 적막의 광야로 변했다。눈은 멎었으나 개미한마리 보이지 않는 고요한 심산유곡같은 동경이다。또 총소리가 들려온다。꽤 가까운 곳이다。라디오가 또 보도를 시작한다。『너희들은 즉시 귀순하라。귀순하는 자는 관대하게용서할것이다 아직도 늦지않다』군인들이 봉기한 것이다。그것도 천황폐하를 경호하고 있는 궁성속 고노에 사단에서 발발한 사건이다。

동경아사히신문사윤전기에는 모래가 뿌려졌고 아다고山에 있는 NHK방송국은 점령되었다한다。산노(山王)호텔에 본거를두고 있는 반도들에게 당시의 수상 이누가이가 살해 되었다。그가 죽기직전 젊은 행동대 군인들을향해 『너희들이 뭘 안다고 이러느냐』고 고함친 말은 유명한 어귀로 후일 유행어가 됐다。비행기에서 전단이살포되었고 라디오는 여전히 『아직늦지 않았으니빨리 귀순하라』가 연발되었다。

『시민에게 고한다。총성이 나는 방향으로 다다미를 세우고은신하라』 내가 있는 이이다바시는 궁성과는 불과1㎞거리다。다다미를 궁성쪽으로 세우고 몇시간을 엎드려있었다。당시 일본군부의 젊은 장교들이 군사, 정치, 경제를 둘러싼 의견대립으로 소위 우국의 거사를 감행한것이다。나라를 구하기위한 우국장교들의 모의로 인해 발발된 「2·26사건」은 무위로 끝났다。

이러한 와중에서 졸업식이 거행되었으나 소정의 학사시험을 이수하였으므로 법학사를 수여한、그러나

◇1936년 3월 日本大學법학부졸업당시의 필자。

病깊은 李箱찾아와 藥 사주기도

용의 졸업장을 받아들고 우리들은 정든 학교와 결별했다。교문앞 우동집、빵집、담뱃가게、다방아가씨와도 작별의 정을 나누었다。

일본이여 안녕。

일본과의 작별이 점점 마음속에 다가온다。

고시외교부문의 시험은 보기좋게 떨어졌다。애당초 응시하지 말아야했다。식민지 사람이 건방지게 무슨 외교관시험이냐。나는 그렇게 자책하면서 그리 분한 씨름이라고는 생각하지않았다。3월 어느날 서울에 있는 李箱이 날아왔다。센다이(仙臺)에 있는 東北제대에 가서 문학부에 적을두려고도 했고, 동경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싶었던 것도 그의 포부였다。동경에서 그의 쇠약한 여윈손을 잡고 반가와 했다。

다음날아침 우리는 구단시타에 있는 목욕탕에 갔다。그는 이미 산송장이나 다름없었다。폐결핵이 아니라 다른병까지 겹쳐 건강이 말이 아니었다。죽을날이 그리 멀지않았다는 것을 나는 직감했다。약방으로 데리고가 두가지약을 사서 그에게 주고 밤에 무절제한 생활을 책망했다。『그러 저럭 살다 가는거지 뭐』그는 거리낌없이 자포자기의 말을 하면서 미소까지 곁들인다。그 처량한 모습이 내마음을 아프게 했다。

流星의 賦 <368>
李炳注 作 李友範 畵
고독한 英雄 ㉓

그렇게 되었을때의 우회다의 반응이 눈에 보이는것 같았다。한마디로 말해 우회다가 홍계남의 인질이된다는것은 배반적 영주(領主)로서의 신분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남아로서의 명예를 영원히 짓밟는 것으로된다。그러니 어떠한 명분을 들이댄다고 해도 우회다는 홍계남의 인질되기를 수긍하지 않을것이었다。뿐만 아니라 그의부하들이 용납하지 않을것이었다。유일한 방법은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함정을 만들어 사로잡거나 할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용이할 까닭이 없는것이다。

『한가지 방법이 있읍니다만』

하고 신봉이 다음과 같은 제안을했다。박정세라고하는 불령분자가 우회다에게 붙어 갖은 아첨을 하고있는 바 금품으로 그놈을 매수하여 하룻밤 강상유(江上遊)를 시도해볼수 있지않을까 하는것이었다。일본에 있어서의 교의를 들먹여、전쟁을 확대하지 않을 방도를 숙의하자는 의도를 곁들여 초청하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다음의 문제는 그때가서 연구할 작정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신봉의 의견이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조인식이

『아마 무망할 것이오。상대편은 그래도 일방의 대장(大將)이고、홍부장은 아직 조정의 관작도 없는 별동군(別動軍)의 수령일 뿐인데 명분상 상대가되지 않소。왜놈은 계급과 관작에 관해선 심히 까다로운 놈들이오。비록 구의(舊誼)가 있다고 하나、격식에 맞지 않는 초대는 받지않을 것이오。왕명(王命)을 받는 무슨 문서가 있으면 또 모르지만』

하고 이견(異見)을 달았다。

그것도 그럴 것이었다。일본은 누차 화의(和議)의 문서를 조정에 보내오고 있다니까 왕명을 받는 사신(使臣)이라고 하면 모르되、신분상에 현격이 있는데 단순한 지면(知面)또는 옛날의 교의(交誼)만으로서 정중히 일개 별동대 수령의 제안을 호락호락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었다。

『꿩잡는게 매라고 그놈을 사로 잡을수만 있으면 될것이 아니오。왕명을 위작한 문서로서 한번 시도해 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96>
朴婉緒 作 金光培 畵
明暗 ㉚

그래서 그는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전화를 걸 배짱까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은 참고 기다리기로 했다。그것 또한 결혼할 여자라면 연애시절부터 엄하게 길들여야 한다는 선배들의 충고때문이었다。

이번만은 수지쪽에서 먼저 전화 걸고 사과하도록 하리라。어젯밤의 수모를 상쇄하기에 충분한 사과와 애정표시가 있기까지는 결코 수지를 용서하지 않으리라。이제부터라도 여자는 엄하게 길들이리라。이렇게 잔뜩 벼르면서 수지의 전화를 기다렸다。

『여자한테서다』

그의 전화를 바꿔준 동료가 눈을 찡긋했다。인재는 재빨리 시계를 보았다。아직 오전이었다。그러면 그렇지。인재는 해안을 못참는 수지의 조바심을 은근히 흡족해 하며 여유있게 전화를 받았다。

『전화 바꿨읍니다』

『안녕하셨어요。오목이에요』

여자의 말씨없이 미미한 떨림이 되어 전해졌다。

『아아 미스최군요? 웬일이에요』

오(吳)목이는 이제 최(崔)오목으로 행세하고 있었다。미순이네서 혼기가 되도록 처(妻)이 없는 목이를 딱하게 여겨 양녀로 입적을 해주었기 때문이다。미순이네 인심도 후했지만 목이도 집국스럽게 아이들의 언니노릇을 하며 집안 일도 잘 거들어 그 집안의 보배였다。입적 시킨는 것에 이름까지 바꾸 고아원시절의 때를 깨끗이 떼버리는 게 미순이 부모들의 생각이었지만 목이는 아직도 오목이라는 이름에 다른 부모를 찾을수 있는 단서가 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않고 있었다。

그래서 미순이네서 큰생색 내며 해준 입적도 실은 별로 고맙지 않았다。오목이라는 성(姓)만이 목이를 홀대하던 노리개를 움켜쥐고있는 딸의 부모에 대한 귀염받은 로 복귀할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목이도 믿고 있었다。결국 입적과 오목이를 절충해서 그녀는 최오목이 돼 있었다。

『축하해요。인재씨』

『뭘요?』

『어제 졸업식 말예요。가서 축하해 드리고 싶었어요』

『아、그랬어요? 몰랐군요。오지 그랬어요?』

『오라고 그래주시지도 않았는데 가도 괜찮을까봐라 망설이다 말았어요。가족이나 친척들도 여러분 오실텐데 부끄러운 생각도 들구요』

『그랬어요? 괜히 미안하네요』

어제 그 시간에、그 참담한 시간에 어딘가에서 순진가련한 처녀가 그를 위해 마음이 고 애태웠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그 생각하기도 싫은 시간이 화려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고대하는 전화대신 온 얼토당토않은 전화여서 실망스럽던 마음까지도 누그러지면서 슬그머니 너그러워졌다。

『아、아녜요。제가 뭐나 숫기가 없고 변변치못해 그런 걸요』

『그래도 저로선 또한번 빚진 기분인데요。어쩌죠?』

인재가 빚진 기분이라는 건 오목이를 처음 알게된 내력과 관계가 있었다。인재가 취직하고나서 처음 정한 하숙으로 처음으로 귀가하는 날이었다。낯선 동네의 비슷비슷한 골목 잘못 헤매다가 엉뚱한 집을 찾았다。막상 내리려니 버스값이 없었다。망신을 당하기 직전에 뒤따라 내리면서 얼른 버스값을 내준게 오목이였다。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시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R) 298-8558

이대환부동산
전화 : 535-1251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복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순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덕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David Chae (채준성)
전화:633-7892(R)497-8900(B)

광고문의 533-2361

이대환 不動産

주택.건물.프라자.아파트 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 부동산회사에 맡겨 주십시오.

*버라이어티 스토어

①주매상 $7,000이상 건물(1베드룸)포함 D.P. $120,000 아스킹 $210,000
②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130,000 리스 : 4+5 옵숀10년
③주매상 $8,000 아스킹 $109,000 리스 : 9+5옵숀
④주매상 $6,500 아스킹 $65,000 렌트 $500(Mon) 리스 : 11½년 20마일. 시외

*도나스 샾

주매상 $9,200 렌트 $3,500 리스 : 3+5+5+5 아스킹 $310,000 다운페이 $150,000

*햄버거 샾 *드라이 크리닝 *커피 샾등 여러가지 비지네스가 있음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주5일
식품점에 신문배달

식품점에 가시면

⊙새로나온 〈한국일보〉가 있읍니다.
⊙아내에의 선물〈주간여성〉도있읍니다.

※토론토한국일보사는 토론토 부근 10개 한국식품점에 당일 발행된 신문을 매일 배달, 판매합니다.(단 : 미시사가소재 식품점에는 당분간월·수·금요일만 배달)

—한국일보사—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식 품 점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재미있는 주간여성 식품점서 판매중

약 국

WILLER'S PHARMACY
전화 : 656—3351, 656—3247 양 문 정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 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전화 : 746—0675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 태권도장
1065 St. Clair W.
전화 : 652—0000 정 영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페인트·월페이퍼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Using Language Labol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 months(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구독신청(월~토) ☎ : 533—2361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743—0752 서 춘 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전화 : 1—212—762—4694 (New York, U. S. A.)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일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광고문의 533—2361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한국일보 Toronto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분, 11:00 p.m~7:00 a.m(Midnight Full Time) 8:00 a.m~4:00 p.m(Sunday Only)
Rexdale×Kipling 전화 : 743-3822

다운타운에 거주하시는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함).(현찰지불) 전화 : 533-7759 Mr. 박
지렁이 잡으러가는 지역에 좋은 농장이 많음

씨알 한국인 여름학교
동쪽과 미시사가에서 운전하실 분 두분 구함
영어, 수학과 또는 운동코치를 겸하므로 Full Time
Job이 되겠으며 자필이력서를 150 Madison Ave. 로
보내주십시요. (주당: $180)

Shoe Repair Store에서 일하실분 구함
263 Morning Ave.
전화 : 281-2217 (저녁7시이후 연락바람)

일본식당 Kitchen Helper 구함(남자분)
4 Avenue Rd. Park plaza Hotel
전화 : 960-9035

입주하셔서 아기들 (4살, 1살)보아주실분 구함.
특별히 우대해 드리겠읍니다.(Jane+Weston)
전화 : 447-1460 (세시이후 연락바람)

일본식당에서 밤에 접시닦으실 분 구함. 월.화.수(오후4시~밤11시) 오후2시지나서 전화해 주시기 바람
전화 : 421-6016 (Masuda)

입주하셔서 애기(2살반) 봐주실분 구함
(주 5일 화~토요일)
전화 : 536-5914 (9시 이후) 783-0683 (Mrs. 하)

경험있는 가게 헬퍼구함 (파트타임)
미시사가 Lorne Park 지역
전화 : 278-8101, 822-4179

Store Manager 구함
월 $2,500 이상 보장. 몬트리올지역. 유학생도 가함.
전화 : 932-7775, 524-7775

꼭히 서부지역에 사시는 분으로 지렁이잡이에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매주 금요일지불함)
전화 : 656-8937 (Annagickopoulos)

지렁이 (Weston & Finch 지역)
전화 : 741-2551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지렁이 잡으실분. 당일지불(Cash)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로 우대함. 경험자 환영
전화 : 537-6345(롬), 531-0773(김)

남·녀 캐셔나 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 368-8138 Mr. 리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
인틀마다 지불함. 영어로 문의 바람.
전화 : 534-8121 Dennis

신원보증을 확실히 할수 있는
21세~25세 사이의
가정을 내집같이 돌봐주실 용모단
정한 여자분 구함
전화 : 298-6117, 598-4143

Full Time Helper 구함
시간: 3:00 p.m-12:00 p.m 위치: Queen×Triller
전화 : 532-6143, 532-9638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운서
653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매매및 양도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주매상 5천불+4천(티켓), Asking $29,900
렌트 $400, 6년리스, 800 sq.ft(스넥비포함)
위치 : 오샤와(Oshawa) 주인이 유럽으로 떠나기 때문에 급매 원함
Bagot Realty Inc. Realtor
전화 : 1-579-4010(B) 1-683-8154 (after hours)
Call Frank Magnus

좋은 위치에 모든 라이센스 갖추고 있는 식당급매
좌석 : 180 (Banquet Room은 따로 있음)
주매상 : $10,000~$12,000, 렌트 : $850(Mon.)
Owner will take back mortgage,
Asking : $250,000
Call Joe, 787-0491

가정 형편상 급매
2층에 3베드룸과 뒷뜰에는 넓은 정원이
있읍니다. 가게달린 건물임.
$15,000 다운페이.
전화 : 242-3873 Miss. 오

Bloor 와 Christie에 위치한 식당(Tavern) 급매
L.A.B.O 있음. 리스 : 15년.
좌석 : 100석 (Banquet Room : 200석)
자세한것은 Peter에게 문의 바람.
전화 : 656-0011

1. 좋은자리에 새로 OPEN하는 DONUTS SHOP
현찰 $40,000 요구 리스: 20년 Rent: $2,300
아스킹 : $140,000
2. 주매상 $6,500의 DONUTS SHOP
Long Lease,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30,000
3. 주매상 $8,000의 DONUTS SHOP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9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가게달린 빌딩 매매〉
경쟁없는 지역임. (칼레도니아 × 에그린톤)
2층에는 3베드룸 아파트와 2개의 부엌
큰 리빙룸과 큰 지하실
CASA 복덕방 Peter Chung
(B) 636-1504 (R) 635-8971
※영어로 문의하십시요

각종보석 인벤토리 SALE
세번씩 보석디자인상을 받은바있는 바루주·타바키안씨(Varouj·Tabakian)가 처음으로 Public에게 Open하며
최저가격으로 봉사할 예정임.
107 Church ST. #400
Call "Varouj(바루쥬)" 362-0507
Open Hour : 10 : 00A·M – 6 : 00P·M

★바쁜 쇼핑·몰안의 Food Store
★3개의 상점과 2개의 3BedRoom Apts와
3개의 (BedRoom Apts가 있는 2층 빌딩
Queen St. W. 에위치(Dennis or Sam)
전화 : 534-3089 or 466-9609

3 Bed Room 건물딸린 Variety Store 급매

Hamilton Downtown Busy area.
주매상 : $4,200~$4,500 Extra 순수입 : $900~$1,200(월)
Ask Mr. Kim 전화 : 1-525-2115

성업중인 식당(Tavern)급매(L.L.B.O.있음)
리스: 18년, 주매상: $10,000이상.
좌석: 150(1층), 218(Banquet Hall)
아스킹 프라이스: $300,000 (Cash일 경우 $250,000)
Downpayment : $150,000 이상 요구
위치: Birchmount와 남쪽 Eglinton 전화 : 222-7494
(12:00-2:00의 점심시간은 피해서 해주실 것)

사정상 급매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Milk Store)
Whitby & Oshawa 전화 : 282-7596(Mr. 황)

CN Tower에 가까이 있는 큰 주차장 딸린 식당(Tavern)매매
좌석 : 100석이상. 아스킹 : $180,000. Call Jim 596-6706
영어에 능한분이 연락주시기 바람

여자 혼자할 수 있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급매. 시설비만 받고 매매할 예정임.(꼭히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61 Main St.

몬트리얼에 있는 맥주와 포도주도 파는 그로서리 스토어
년 매상 : $235,000 아스킹 : $39,000+스탁
전화 : 1-514-932-6046(Mr.Kim)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콘도미니움 2BedRoom 세놓음(월 $500)
5월1일 입주가능. Islington×F inch
전화 : 745-4347

PIZZA STORE 매매 (London, Ont.)
주매상 : $2,000이상, 영업시간 : 오후4시~새벽1시까지
전화 : 1-519-681-7631(B) 오후 4시이후 연락바람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0 + 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BIBLE STORY (전 10권) Set $240.–
전화 : 769-4366 (오후 6시이후)

Variety Store 급매. 가정사정으로 인해 급매 코저함.
Rent : $350. 리스 : 10년. 주매상 : $2,500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음. 전화 : 757-6458

〈매매 또는 렌트〉
타 사업관계로 로타리오머신이있는 스토아와 2베드룸 급매
주매상 $3,500 좋은조건에 양도하겠음. 64 Kingston Road.

비데오 아케이드 쎄일
15대 머신 담배 Refreshment의 Licence를 지님
전화 : 266-9770

믿고 투자할수 있는 좋은기회!
급성장하는 지역의Pharmacy for sale with building.
위치: On Weston Rd. 전화 : 781-2560(Mr. Balin)

Kingston Rd. 와 Victoria Park Corner에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전화 : 698-0844 언제든지 연락요망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Hamilton지역)
주매상: $4,500. 아스킹: $45,000+스탁. 리스: 7년 +10년(옵션)
리스: 7년+10년(옵션) 전화 : 1-388-4825 (Mr. 유)

자개문갑, 애기 3층장
전화 : 661-4581

Using Language Labolatory,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 months(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아파트 4채가 있는 집수리 끝낸 건물팝니다.(서쪽끝) 아스킹 : $199,900
전화 : 465-2073 오전 10:00 – 밤12:00

MODERN CLOTHING STORE FOR SALE
중앙지역,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전화 : 465-2073 10:00a.m.-12:00p.m.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자동차 급매
81년도 뷰이·스카이라크 6기통·13,000Km
전화 : 249-6327 (Mr. Kim)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4,200-4,500. 아스킹 : $29,000+스탁
1000 Pape Ave.(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3,500
전화 : 264-4431 (오후5시이후 연락 바람)

Becker 프렌차이즈 스토아 매매(스카브로지역)
꼭 관심 있으신분은 오후6시이후 연락바람
전화 : 755-8852

자동차 급매(가격 : $2,500)
갑작스런 미국 이주관계로 A.1 Condition의 76년도 Dodge
(46,000mile)팝니다. 전화 : 533-8507 Mr. 리

무스코카지역에 있는 부동산 매매
그로서리가게(과일, 채소등)와 집
가족끼리 운영하기에 알맞은 사업
큰 파킹장이 옆에 있음
※관심있으신 분은 부라운·로버트에게 전화주세요.
전화 : 789-1724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Fast Take Out Food
중국음식도 메뉴에 넣을수 있음. 좋은조건의 리스
전화 : 633-2981

사무실·점포 렌트

사무실렌트 위치:20 Mobile Dr(한인회관) 크기:1)3.6m×3.8m 2)2.6m×4.4m 위의 방이 같이옆에 위치해서 있으며 함께 또는 각기 임대 할수도 있음. 전화 : 755-9288

단독 또는 공동으로 렌트 하실분
Young St.(로렌스×욕·밀 중간지점)
전화 : 481-3677 Frank

하우스 렌트

교통이 편리한 다운타운 지역.
Furnished 1Bed Room($달 180)독신환영
전화 : 763-3289, 365-1489

1 BedRoom & 2 BedRoom Apt.
College & Ossington Area.
$350-$450(M) 전화 : 531-6183

구독신청(월~토) ☎ : 533-2361

가 구 점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VACUUM CLEANER 출장수리
카페트 CLEANER & SHAMPOOER
전화 : 881-4915 Mr. 조

＊한국일보 안내광고＊

2ND CLASS MAIL NO. 5248